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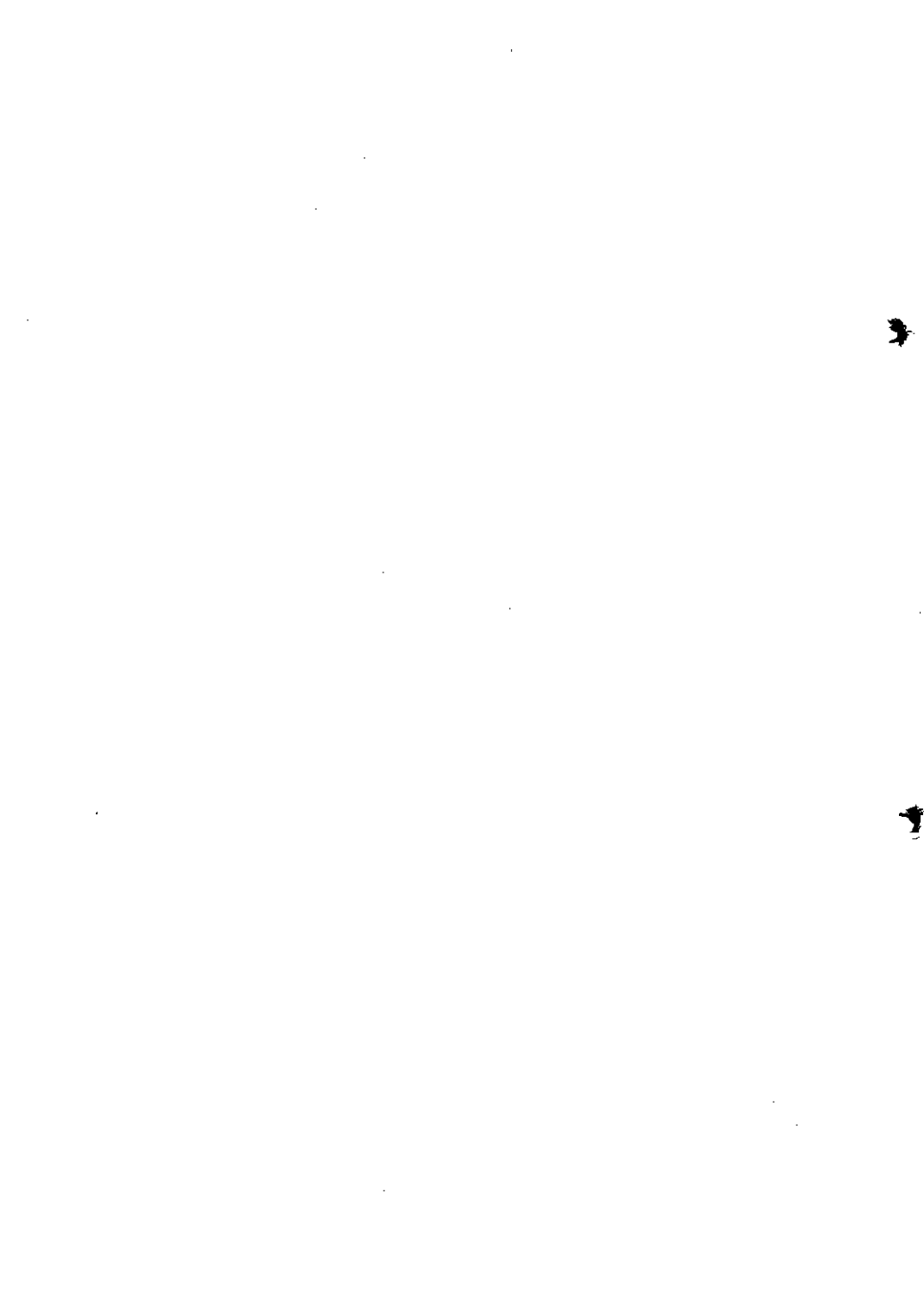
界記速

第 22 號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3	《卷頭言》 史官으로서의 責任과 矜持를	會 長 朴 權 欽
5	《新任人事》 成就意慾을 드높게	理 事 長 申 世 華
7	《特別寄稿》 내가 본 速記人	國會議員 柳 瓊 賢
9	《激 勵 辭》 速記의 價値는 永遠한것	國會議員 曹 秉 完
	● 論 壇 ●	
11	議會速記業務制度改善에 관한 小考 (主任速記士의 必要性에 관하여)	蔡 康 熙
14	國會會議錄 用語集 發刊의 必要性	崔 況 洙
	◎ 特 輯 ◎ 第3回 全國速記競技大會	
18	I. 大會經過	資格審査委員會
19	II. 參觀記: 速記競技大會를 치르고	柳 智 永
20	III. 受賞所感: 320/1+395/1=「그랑쁘리」?	趙 正 昫
22	IV. 放 談: 速記競技大會를 마치고	編 輯 部
27	會 員 文 壇: 더필이 旅行記	金 正 德
32	會 員 文 壇: 定期國會 速記席	鄭 珠 鉉
33	會 員 文 壇: 釜山 夏季 講習記	申 熙 東
35	◎ 特輯放談 ◎ 우리는 한 職場	編 輯 部
42	◆ 用語解説 ◆	研究委員會
43	● 소 식 란 ●	涉 外 部
	● 體 育 ●	
46	第10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鄭 珠 鉉
49	第1回 全國速記人「메니스」大會	金 致 元
51	第14回 定期總會	總 務 部
54	會 務 報 告	總 務 部
17	第18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合格者名單	
45	速記料金 案內	
8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55	會費納付 案內	
13	原稿募集	
6	會員 住所錄 訂正接受	
56	編輯後記	





史官으로서의 責任과 矜持를

會長·國會議員 朴 權 欽

「파스칼」은 “人間은 생각하는 갈래”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人間을 “社會的 動物”이라 했습니다. 또 우리는 흔히 불과 도구, 말의 사용을 사람이 萬物의 靈長이 되는 所以요, 그 特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思考하는 存在이며, 群集本能이 있어 말을 使用하여 서로의 思想을 交換해가면서 모여 산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物質文明으로 發展해 온 불과 도구의 使用과는 달리 한 次元 높은 人間의 精神文化를 이룩하는 重要한 手段이었음은 아무도 否認 못할 事實인 것입니다.

그러나 人類의 精神文化 形成의 核心要素인 말이라는 것도 萬能일 수는 없었고 자연히 時間과 空間의 制約을 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人間은 이러한 制約을 克服하기 위하여 文字를 發明하기에 이르렀고 이와함께 歷史의 記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普通文字로는 말의 速度를 따라서 한 마디도 빠짐없이 記錄해야만 하는 그 機能을 다 할 수 없었고 또한 會議席上에서의 重要한 發言이나 訟事中的 證言을 正確하게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해서 人間이 考案해 낸 것이 바로 速記라는 위대한 發明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速記는 말을 글로 轉換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重要한 手段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歷史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이 이 땅에 創製頒布된지 535주년. 韓民族으로서 한글을 世界앞에 자랑한다면 우리의 말과 글의 媒介體인 한글速記 또한 世界 앞에 함께 자랑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文化的 資產이라 생각합니다.

祖國光復과 더불어 말을 내디디게 된 韓國速記는 歷史의 展開過程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國會速記士는 議會政治의 底流에

서 史官의 機能을 다해왔던 것도 事實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物質文明이 더욱 發達되고 現代社會의 규모가 커지고 高速化되던 될수록 速記는 多方面(株主總會, 座談, 裁判, 取材, 講義 등)에 걸쳐 더 必要해질 것이며 速記士의 矜持와 보람도 또한 더욱 커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國會 速記士는 우리 議會歷史의 史證人이며, 그와 관련된 애환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速記가 國家와 社會로부터 翁分의 대우와 政策的 保護를 받지 못하고 있는 現實은 우리 모두가 反省해 볼 일입니다.

本人은 한때 速記人으로 活動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社會 進出할 때 速記를 배워 익혔기 때문에 신문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新聞記者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新聞記者를 한 것을 계기로 특히 政治部 記者로 오래 일을 하다보니까 政治에 관심있게 되어가지고 國會議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速記가 나의 人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契機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速記人의 唯一한 團體인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會長에 推戴되었을 때 기꺼이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여 速記人이 새 會長이 되었다고 하여 會員 모두가 기뻐하고 기대를 크게 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여러분의 期待에 副應할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만 速記의 發展과 速記人의 權益伸張을 위해서 最善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會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參與意識의 擴散을 바라며 記錄人으로서의 責任과 矜持를 가지고 말은바 使命을 다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끝으로 지난 10月 9日 한글날을 맞아 第3回 全國速記競技大會를 開催하는데 聲援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丁來赫 國會議長님과 韓炳宋 文公委員長님, 그리고 朴淳鎭 事務總長님께 심심한 謝意를 表하며 특히 이 大會를 위해 後援과 協贊을 해주신 韓國放送公社와 韓國「파이롯드」萬年筆社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會員 여러분의 健勝을 빕니다.

1981年 12月

《新任人事》



“成就意慾을 드높게”

理事長 申 世 華

새 時代의 章을 연 辛酉의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壬戌의 希望찬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會員 여러분의 家庭에 平和와 健康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80年 歲暮, 第14回 定期總會에서 여러분이 本人에게 理事長의 重責을 맡겨 주신지 어언 1年이 지났습니다.

그간 協會는 第五共和國의 새로운 出帆과 함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보려는 왕성한 意慾으로 朴權欽議員님을 새 會長으로 모시고 希望의 뜻을 올렸습니다. 이와같은 새로운 기운은 協會에 넘치는 活力을 불어 넣었고, 會員 모두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10餘年만에 다시 速記競技大會를 성대히 開催하였고, 速記人 相互間의 連絡, 紐帶, 協助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速記人住所錄」을 發刊하였으며, 會員 相互間의 對話의 幅을 넓히기 위하여 非公式의 이나마 理事長杯爭奪「테니스」大會를 開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國際的인 速記資料의 蒐集과 交換을 위하여 數次에 걸쳐 外國 速記界와의 書信交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새로운 事業 以外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速記資格檢定試驗 全國速記人體育大會, 速記界發刊 速記講習 등의 事業도 蹉跎없이 遂行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會員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調에 의한 것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는 동시에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外形的인 協會의 活動相에만 눈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곳에 潛在해 있는 우리의 活力에 보다 많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랑스럽게도 우리는 速記를 할 줄 안다”는 自負心과 矜持, 그리고 “우리는 같은 速記人”이라는 一體感을 갖는 것이며, 그로부터 派生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自信感과 參與意識, 그리고 人和團結의

니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協會를 名實相符한 協會로 만들어 가는 숨은 힘인 것이며, 記錄文化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는 우리 速記人 모두가 日就月將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할 課題는 이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날 交通 通信의 發達로 地球家族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世界는 좁아지고, 가까와지고 있어 우리 速記文化 역시 언젠가는 國際舞臺에도 進出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協會도 「Intersteno」에의 加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速記人的 福祉 및 요람처를 마련하고 協會의 基盤을 다지기 위해 速記人會館의 建立과 이를 위한 基金의 造成 내지는 財政的 自立이라는 長期的인 目標을 세워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速記人이 國內 單一團體를 形成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現實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速記에 관한 限 韓國의 速記人 모두가 우리 協會에 모여 강한 結果力을 보여주어야만 되겠습니다.

會員 여러분!

우리는 남 못지않은 發展 可能性과 記錄文化의 時代的 要請이라는 當爲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會員 個個人的 發展이 곧 協會의 發展과 直結되며 協會의 發展은 곧 會員 個個人的 發展의 디딤돌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會員 여러분의 個人的 發展과 目標達成을 衷心으로 祈願하는 同時에 協會와 會員의 發展이 서로 調和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韓國 速記와 協會를 위해 速記人 모두 各自의 姿勢를 다시한번 가다듬고 成就意慾을 드높입니다.

(國會速記課長)

速記人 住所錄 案內

協會에서는 既發刊한 바 있는 速記人住所錄 作成時에 漏落된 분이나 姓名表記上에 錯誤가 있는 분 그리고 81年 10月 以後 住所가 變更된 分の 訂正申請을 받고 있습니다. 連絡을 바랍니다.

連絡處 協會 渉外部 Tel: 7802—2472, 2475

《特別寄稿》



내가 본 國會 速記士

國會議員 柳 瓊 賢

一般인으로서 速記에 대해 특별히 關心을 가지거나 接해볼 機會는 그다지 많지 않다.

本人도 數年間の 言論生活을 해왔지만 또한 그 業務가 가장 빨리, 그리고 精確하게 精報를 提供해야 되는 소위 「스피드」를 要하는 職業으로서의 그 任務를 가장 效果의으로 充足시켜 줄 手段이 되는 速記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時期이다.

精確히 말해서 本人이 政治에 入門을 하고 議事堂을 出入하면서, 本會議나 常任委員會등 議員들의 各種 會議에 항상 자리를 같이 하여 그것도 會議場의 한가운데에 앉아서 議員들의 發言 내용을 그야말로 한 字, 한 劃도 빠뜨리지 않고 記錄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여 나가는 速記士의 민첩한 손놀림을 보고서 부터 歷史의 한 現場에서 歷史의 部分을 記錄하는 速記, 速記士에 대한 認識이 새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本人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速記의 歷史는 우리 憲政의 歷史와 함께 시작되고, 議政史 또한 速記術에 의해서 本格的으로 記錄되기 시작하였다고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憲政史와 速記史, 國會議員과 速記士의 關係는 不可分의 關係를 維持하여 왔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速記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떠한 나라든지 또 어떠한 形態의 議會가 存在하든지간에 議會史의 記錄은 반드시 이런 速記와 速記士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中에서도 北韓共產集團만은 眞正한 意味의 議會가 存在한다고 할 수 없지만 形式的인 議會나 기타 各種 會議의 記錄이 우리와 같이 독특한 速記法과 速記術에 의해가지고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略記나 「메모」의 形式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볼 때에, 이 速記法의 存在有無나 發達의 정도는 바로 그 나라 議會民主主義의 水準과 文化水準을

尺度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英國의 옛 俗談에 이런 말이 있다.

“英國 女王과 速記士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速記는 眞實을 알리고 事實만을 그대로 記錄하는 것을 가장 큰 生命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速記가 우리 固有의 優秀하고 科學的인 한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고유의 速記라는 事實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줄 안다.

그러기에 現在까지 모든 國會議員들의 發言, 그냥 듣고 理解하기도 힘이 드는 高速度의 發言이나 政治는 勿論 經濟, 社會, 文化, 國際情勢의 一般에 이르기까지 多樣하고 專門性을 띠는 發言도 無難히 記錄, 整理해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中進國의 隊列에 올라서서 先進國의 문턱을 向한지 이미 오래 전이다. 人類의 歷史를 돌이켜 볼 때, 물질문명의 發達이 精神文化의 發展을 同時에 遂行해 온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反面에 文化振興의 側面이 소홀히 되어 오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잊을 수가 있다.

따라서, 國家全體의 觀點에서 議會의 役割과 比重이 크고 또한 議會를 이끌어 나가는 國會議員의 活動相이 重要해진 만큼 議政活動의 뒷전에서 誠實하게 議政史를 記錄하고 산 歷史의 證人으로서 그 役割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오늘의 速記士들에 대한 一般의 關心이 더욱 增大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이다.

(民正黨 副總務)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Counsel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관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 渉外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친절하게 案內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이 많은 분은 널리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Counsellor) : 本協會 渉外部 Tel 7802-2472, 2473



速記의 價値는 永遠한 것

—速記競技大會에 부쳐—

國會事務次長 曹 秉 完

人類의 歷史는 지금도 쉼 새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時代的인 變遷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측면에서 볼 때, 옛날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機械文明의 發達로 인해서 가고 사람 대신에 機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例는 우리가 日本의 自動車工業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日本의 自動車工場에서는 「로봇」에 의해 가지고 自動車を 生産함으로써 大量生産이 可能케 되고 또 보다 싼 自動車を 生産함으로써 美國의 自動車 生産을 앞지르고, 그것이 產業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같이 機械文明이 發達되고 또 그것이 實用化됨에 따라가지고 生産의 計劃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技術에도 도전하고 또 威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카세트」에 의한 「테이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具體的인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人間의 두뇌나 손은 「컴퓨터」보다도 더 高性能이고 精巧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速記의 技術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愛護하고 開發하는 限 그 技術의 生命이나 價値는 永遠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의 速記競技大會는 큰 意義를 가진다고 本人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러한 競技를 통해서 技術을 開發하고 또 速記人口의 底邊擴大를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가지고 激贊을 하고 또 激勵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受賞者는 물론이지마는 受賞하지 못한 競技에 참여한 여러분에 대해서도 速記를 알고 또 速記士를 아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全幅의 敬意를 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激勵의 한 말씀이 된다고 하면은 더 없는 큰 뜻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끝으로 速記의 技術을 가진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있고 榮光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웃음의 벤치 *

<교칙>

「아무리 못했기로서니 빵점은 너무 하지 않아요. 이번 제 시험 점수는 빵점이 아니라는 자신이 있어요, 선생님.」

「나도 너의 답안이 빵점이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야. 다만 교칙에 의해서 영점 이하를 매길 수가 없어서…….」

<농사>

흉년이 들어서 율상이 된 농부에게 목사가 위로를 한다.

「불평을 마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날마다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테죠」

농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내가 지은 농사로 말이죠.」

<돌팔이 의사>

돌팔이 의사가 왕진가는 길에 개구장이들의 장난을 보고 꾸짖었다.

「이놈들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천국에 못 간다. 자, 천국에는 어떡해야 가게 되지?」

그중 한 개구장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하였다.

「죽으면 가죠.」

「그야 그렇지만…….」

하고 돌팔이는 설교조로 말했다.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란 말이다,」

개구장이는 곧 대답하였다.

「네, 선생님의 치료를 받아야죠.」

<인형과자>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초콜릿으로 된 인형과자를 고르게 했다. 딸은 종이로 된 치마를 일일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집엔 계절에 인형뿐이네요. 난 사내 과자가 먹고 싶은데.」

「사내가 좋다는 뜻이야?」

「아뇨, 사내과자가 먹을 게 하나 더 있거든요.」

〈世界諧謔小説大全集에서〉

議會 速記業務制度 改善에 관한 小考

—主任速記士의 必要性에 관하여—

蔡 康 熙

一, 序



國會는 1948年 制憲
國會 당시부터 現在까
지 速記士에 의하여 그
時代의 民意를 收斂濾
過하는 國會議員들의
議政發言과 閣僚들의

答辯 및 모든 證言에 이르기까지 한字 한
句 빠짐없이 記錄하여 貴重한 史料로서
速記錄이 作成되어 永久保存되고 있는 것
은 傳統文化民族으로서 커다란 자람이 아
닐 수 없다.

制憲부터 5代 國會까지는 本會議 中心
으로 6代國會부터 現在(11代)까지는 常任
委員會 中心으로 國會가 運營되어 오면서
그동안 速記士의 量的인 팽창은 물론 質
的인 向上이 크게 부각되게 되었다.

특히 9代 이후 11代 國會에 들어와서는
常任委員會에서 일단 質疑를 한 案件에 대
해서는 本會議에서 다시 質疑를 할 수 없
게 되어있어(豫算案 등 議長이 중요하다
고 인정하는 案件은 除外) 그 記錄의 正
確性 내지 重要性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現代社會의 규모가 커지고 專門化
細分化되어 감에 따라 常任委員會에서의
議員들의 發言 역시 專門化 내지는 高速
化되어 가는 추세에 놓여 있다.

이에따라 既存 制度만으로는 速記業務
의 신속·정확을 다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감은 우리 모두가 痛感하고 있는 事實일
것이다.

速記業務의 制度的인 改善方案은 議文
의 機械化, 速記의 機械化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나 本稿에서는 노련한 速記士를
所管常任委員會에 1人씩 配置, 會議全體
의 흐름을 파악하여 問題點解決에 助言者
가 될 수 있도록 運營하는 主任速記士 制
度의 必要性에 대해서 考察해보기로 하겠
다.

二. 理 由

1. 速記業務는 高度의 精神集中力을 절
대 必須要件으로 한다. 그리고 會議場 全
體가 한 눈에 들어오고 그 분위기가 몸에
배이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정확한 記錄이 可能한 業務이다.

그러나 現行 速記業務는 主務·副務 2
인이 1組가 되어 10분내지 20分間 交代로

記錄하므로 會議內容의 全般的인 파악이 미숙하고 不完全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러한 制度로 말미암아 發生하는 誤聽 誤記 등의 誤謬를 最大限 줄이기 위해 主任速記士를 委員會에 始終參席케 하여 이를 是正補完함이 타당 할 것이다.

2. 各 委員會別로 專門速記士를 양성하여 高度로 專門化 되어가는 發言內容을 정확히 記錄할 수 있도록 資料 및 專門用語를 蒐集하여 研究케 하면 速記錄作成에 效率의으로 對處할 수 있다.

3. 新規로 採用되는 職員들의 業務未熟에서 오기 쉬운 誤聽 誤譯可能性을 事전에 「체크」하여 줌으로써 記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三. 擔當業務

1. 所管委員會에 參席

會議 開議때부터 散會時까지 始終 參席하여 會議內容을 全體的으로 파악하며 速記士가 記錄하는 가운데 가장 틀리기 쉬운 發言內容 내지는 誤謬를 법할 수 있는 內容등을 記錄한다.

2. 資料蒐集의 一元化

會議日時, 場所, 議事日程과 관련된 油印物 및 會議參席者 名單등을 사건에 파악 준비하고 議員들의 發言時에 油印物내지는 原稿朗讀 여부를 파악하여 事後措置를 강구토록 한다.

3. 原稿의 檢討

主任速記士의 가장 큰 職務는 原稿檢討

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現制度는 擔當係長 내지는 編輯係職員이 일단 速記士가 記錄 翻文해낸 原稿를 檢討하고 있으나 이는 字句 내지 漢字表記의 正確性判斷 그리고 前後 文章의 連結에 限해 檢討하는 정도일 것이다.

원래 原稿檢討와 校正은 發言當事者나 그 發言을 記錄한 速記士가 합이 가장 正確하며 또한 그것이 原則이다. 會議場에 參席하지 아니한 사람이 原稿의 校正내지는 文章全體의 誤謬를 발견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始終 會議場에 參席한 主任速記士가 그 會議 狀況을 念頭에 두면서 原稿를 檢討하면 보다 더 正確한 記錄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主任速記士는 第2의 miss take를 방지하는 堡壘者가 될 것이다.

4. 會議結果 報告

會議中 問題點과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狀況등을 즉시 報告함으로써 議員들의 立法活動을 원활히 하도록 補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四. 結 語

速記錄의 價値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後代로 가면 갈수록 그 歷史性이 강조된 것은 물론 現實的으로도 確定된 法律이 施行되는 과정에 있어서 解釋上的 차이가 생겼을 적에 國會速記錄이 重要한 參考資料로서 등장함은 물론 國會議員들이 立法活動을 계대로 벌이고 國政審議를 원활히 할 수 있는데 決定的인 重要資料로서 提供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議員들의 立法補助活動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速記士는 그 맡은바 實務가 그 어느때보다도 重大하다고 하겠다.

現行 速記業務가 數的인 不足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13個常任委員會가 同時에 開議됨으로써 많은 量을 記錄하고 상당한 期間이 지난 後에야 翻文하게 되는

어려움을 다스라도 克服하고 원활한 立法補助活動을 하기 위해서 專門速記士 養成의 一環策으로서 또 더 나아가 速記業務의 能率을 提高시킨다는 發展的 側面에서 이 制度의 定着이 빠르면 빠른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라 하겠다.

(國會速記課 第5係長)

原 稿 募 集

會員 여러분의 權益을 代辯하고 會員相互間的 紐帶와 速記研究 發表의 窓口 노릇을 함으로써 速記文化에 寄與코자 함이 本會誌의 發刊취지인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投稿도 환영합니다.

다음 要領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會誌編輯者에게 보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 本協會 渉外部 Tel. (7802) 2473

- ◇表紙그림.....가로 11cm, 세로 8cm 정도
- ◇研究論文.....200字原稿紙 20~40枚
- ◇速記實務.....200字原稿紙 15~25枚
- ◇回 想 記.....200字原稿紙 15~25枚
- ◇隨 筆.....200字原稿紙 15~20枚
- ◇詩, 詩調, 散文, 기타提言 등

※ 採擇된 原稿에는 所定の 稿料를 드립니다.

國會 會議錄用語集 發刊의 必要性

崔 滉 洙

一. 머릿 말

1948年 5月 31日 첫 歷史的인 國會가 開院한 이래 33個 星霜동안 우리 議會에서는 2500餘 選良들로 부터 各樣各色的 善한 用語들이 쏟아져 나왔다.



언제나 단골손님처럼 謳歌되는 議會專門用語가 있는가 하면 그 時代 그 歷史를 반영해 주는 用語들도 不知其數였다.

文化와 藝術이 그 時代 그 歷史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우리 議政史 33年間 會議錄上에 비친 用語와 言語들은 우리 議政史와 우리나라의 歷史를 말해주는 것이라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制憲國會이래 현재까지 議會에서 謳歌된 主要用語들이 우리 速記士에 의해 한 字 한 句 빠짐없이 記錄되며 速記錄으로 永久保存되고 있음은 傳統文化民族으로서의 커다란 矜持가 아닐 수 없다.

때로는 8道江山 사투리에서 그 時代 그 歷史를 반영해주는 새로운 新造語, 古事成語, 專門用語 또 쉬우면서 불리기 쉽고 誤聽하기 쉬운 用語는 우리 速記士에게는 記錄上 커다란 敵이며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커다란 江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隘路事項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보다 신속·정확한 會議錄을 發刊하기 위해 速記 및 編輯實務用 用語集을 發刊할 必要性은 더욱 더 절실했다고 보겠다.

二. 必要性

1. 速記實務用으로

※ 速記士의 애로

心身障礙者냐? 心神障礙者냐?

금년은 UN이 정한 障礙者의 해 우리 나라도 4月 20日을 障礙者의 날로 정해 獨自的인 거국적 「캠페인」을 벌인 날이 있었다.

그동안 無關心과 냉대속에 살던 90萬의 장애인들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자고 放送과 신문들이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心身障礙者 또는 心神障礙者 등으로 表記되는 것을 보았다.

발로서는 區別해서 發言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不可能하다. 양자가 모두 불린 것은 아니나 心身과 心神은 法律用語上 엄연히 區別되어서 使用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 예를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心神障礙者：社會保護法 8조 1항

心身障礙者：社會保護法 8조 2항

心身上的 障害：헌법 107조 2항

心神喪失의 常態：民法 12조

心神이 薄弱：民法 9조

心身이 衰弱

身體障害等級

이와같이 速記士는 그 用語가 가지는 專門의이고 깊은 뜻은 모르더라도 一般的이고 常識의인 水準에서 그러한 言語가 現實의으로 存在한다는 자체 정도는 알아야만 정확하게 빠짐없이 記錄이 可能한것이고 內容이나 聽取가 困難한 發言은 아마도 記錄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밖의 記錄上 어려운 實例를 몇가지들 어본다.

1級上水源水：生水로 食水可

2級上水源水：濾過處理要

3級上水源水：藥品處理要

公衆電氣通信役務：電氣通信法 12조

公衆電氣通信業務

메이타通信役務：電氣通信法 48조 3항,

메이타通信業務

單項制：特許法

多項制：特許法

醫療救護

醫療保險

醫療保護

2. 編輯實務用으로

實質的인 會議에 參與하지 못하고 速記士에 의해 記錄되어 넘어온 原稿에 대해 2次的인 原稿校正의 責任을 맡고있는 편집要員은 記錄者 이상의 一般常識과 漢字

및 文章力이 要求되는 基幹要員이라 할수 있다.

실사 記錄者에 의해 잘못 들고 잘못 表記되어 온 原稿라 하더라도 자기의 있는 知識을 總動員하여 바로 잡아 줌으로써 精確한 議政史를 남기는데 第2의 보무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 몇가지의 實例를 列舉해 보면 다음과 같다.

※ 保全과 保存

環境保全	資源保存
國土保全	記錄保存
權利保全	綠地保存
自然保全	保存登記
農地保全	要存國有林
保全農地	文化財保存
水質保全	保全處分
保全林地	

또한 參考로 다음과 같은 例도 列舉해본다.

製劑形態：農藥管理法 참조

防除業者：農藥管理法 참조

原劑業者：農藥管理法 참조

定率控除制：財務(소득세法)

情報請求權(言論基本法 6조 참조)

原受保險：財務

探鑛段階：商工

型式承認：商工

액화천연가스受入：商工

栽植密度：農水產

作付體業確立：農水產

이와같이 國會會議錄用語集에 나와있는 用語들만 사전에 익힌다면 아무리 編輯業務에 진연 門外漢인 職員이 이 業務를 담당하더라도 능히 맡은 바 자기의 所任을 다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3. 自體教育用으로

一般的인 常識을 知得하는 方法으로서
는 항상 新聞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첫째의인 方法이 될 것이며 이에 못지 않
게 重要的 것이 漢字敎育과 아울러 議會
에서 使用되는 이 用語集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이다.
既存速記士는 물론 新規採用職員도 항상
쓰면서 익히면 훌륭한 보약으로서 기록에
도움이 될 것이다.

三. 發刊計劃

1. 資料蒐集方法

- 1) 行政府에서 提出되는 業務現況報告
및 各種 法案을 中心으로 하고,
- 2) 新聞 및 國會會議錄
- 3) 月刊中央 現代時事用語事典 등을 中
心으로 國會와 관련이 있고 될 수 있으면
辭典에 없는 必要的 用語만을 拔萃하면
좋은 資料集이 될 것이다.

2. 用語選定 基準

- 1) 議會에서 많이 使用되는 用語로서
틀리기 쉽고 잘 못 알아듣기 쉬운 用語.
- 2) 議會專用 用語
- 3) 發音上 區別하기 어려운 用語
- 4) 漢字表記上 틀리기 쉬운 用語 등을
基準으로 해서 新參 速記士가 처음 速記
實務에 임할 때 錯誤나 오류를 범하기 쉬
운 用語들을 選定하면 족할 것이다.

“實例”

職域別組合：醫療保險法 14조 3항
織機調整

求略式

過多還給

超過計理

藥害事故

相計關稅

集積回路

發券豫約

擁壁設置

寄附統制法

利差補填

西巨次港

業組：專賣

後熟：專賣

加香料：담배

先金給支給義務：建設業法

下都給代金：建設業法

單肥

追肥

複肥

生保者：生活保護對
象者

植桑農家

取材源의 保護：言論
基本法 8조

受民政策

分鐵料

耐用年數

輸特資金

特計資金

計劃造船

3. 用語整理

- 1) 議會專用用語：議會에서 자주 오르
내리는 常識用語 및 專門分野의 主要用語
와 新造語
- 2) 時事用語：國際機構명칭과 時事用語
가운데 略字로 쓰이는 것.
- 3) 常用外來語：外來語가 우리나라 말
化한 것등으로 資料를 區分하면 될 것이
다.

四. 맺는말

※ 議會用語 5000單語

이상과 같은 方法으로 用語를 蒐集하면
議會用語：3500個

時事用語：550個

常用外來語：560個 등 約 5,000 單語가
넘으리라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速記士는 記錄에 만전을, 編輯擔當職員은 校正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보다더 신속 정확한 會議錄을 發刊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속히 國會會議錄用語集이 發刊되어

速記 및 編輯 實務用으로 活用되어 記錄人으로서의 使命을 다해야 함은 물론 議政史에 남긴 귀중한 資料가 보다 더 정확하게 남겨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바이다.

(國會速記課 第3係長)

第18回 국어 영어 速記士資格檢定試驗

日 時 : 1981. 6. 15.

場 所 國會速記士養成所

— 合格者 名單 —

◎ 國語速記

- 1級 : 조민승 김미경 최지나 박용숙
이영숙 이해득 임성춘 이대숙
박정자 (計 9名)
- 2級 : 이해원 신미숙 호영환 (計 3名)
- 3級 : 최현숙 (計 1名)
- 4級 : 한명수 김철기 (計 2名)
- 5級 : 박영래 (計 1名)
- 6級 : 이화영 안영진 (計 2名)
- 7級 : 노종순 소선애 박효숙 이현정

- 유기승 이강원 이진원 박명자
이경희 최경란 최경애 권옥화
양원자 김성희 나승묵 손금숙
(計 16名)

◎ 英語速記

- 1級 : 정의정 (計 1名)
- 2級 : 김영희 정귀혜 (計 2名)
- 3級 : 合格者 없음
- 4級 : 송희선 김춘원 이명숙 (計 3名)

資格檢定試驗應試現況

과목	급수	접수 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비고
국 어	1	28	28	9	
	2	28	25	3	
	3	8	8	1	
	4	18	18	2	
	5	4	2	1	
	6	10	10	2	
	7	33	29	16	
계		129	120	34	
영 어	1	4	2	1	
	2	8	7	2	
	3	9	8	0	
	4	5	3	3	
		26	20	6	
계		155	140	40	

《特 輯》



第3回 全國 速記 競技大會

大韓速記協會 主催
韓國放送公社 後援
「파이롯트」萬年筆 協贊

I. 大會 經過

1. 日 時 1981年 10月 9日(金)
2. 場 所 國會速記士養成所
3. 參加人員 總 41名
議會法式 23名 東邦法式 11名
高麗法式 3名 南天法式 3名
4. 競技方法

A. 正確度部門 演說體：分當 320字
論說體：分當 290字
翻文時間 共히 10倍

B. 速度部門 演說體：分當 350字에
서부터 360, 380, 400字 速度로 各
2分間.
翻文時間 各 10倍

5. 競技結果 다음의 現況表參照

第3回 全國 速記競技大會 受賞 現況(受賞部門中心)

受賞內容 — 競技區分	賞 姓 名	法 式	所 屬(現)	賞 狀	副 賞	誤 字			正確度 (%)	
						脫字	添字	討		
正 確 度 (320字)	大賞	趙正昉	議會	國會事務處	國會議長賞	금반저 3돈	19	13	23	99.4
	金賞	朴茸淑	議會	國會速記士養成所	國會文公委員長賞	TV(14'')	30	6	32	98.9
	銀賞	李京植	東邦	國會事務處	「파이롯트」社長賞	카세트녹음기	48	6	50	98.4
	銅賞	朴仁惠	議會	國會事務處	會 長 賞	디지털라디오	48	17	53	98.3
	獎勵賞	金美京	議會	國會速記士養成所	會 長 賞	전자계산기	55	12	59	98.1
速 度 (400字)	金賞	李蓮姬	議會	國會事務處	國會事務總長賞	TV(14'')	78	7	80	90
	銀賞	李海得	東邦	東邦速記學院	「파이롯트」社長賞	카세트녹음기	77	12	81	89.9
	銅賞	金藝暎	高麗	高麗速記學院	會 長 賞	디지털라디오	94	4	95	88.1
	獎勵賞	金正德	議會	國會事務處	會 長 賞	전자계산기	129	8	131	83.6

II. 參觀記

第3回 速記競技大會를 마치고

柳 智 永

1948年 制憲國會的 開院과 더불어 우리 韓國의 速記史도 같이 呱呱의 聲을 드높이 울린지도 於焉 33個 星霜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速記果도 連綿히 議政史와 나란히 成長하여 왔으나 其間的 迂餘曲折은 여러 速記人 先輩 同僚들이 몸소 體驗하고 지켜 본 바와 같이 荊棘의 歲月을 反復하였다. 또한 日就月將하는 發言速度에 對應하여 各 速記法式이 創案된 이래 實務面에서 體得한 隘路點과 高速度化해 가는 趨勢에 어떻게 對處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速記果가 當面한 課題로 擡頭되었다. 이러한 現 時點에서 10年만에 實施하게 된 이번의 速記競技大會의 開催는 여러가지로 큰 意義를 內包한 大會였다고 보여진다.

지난 10月 9日(한글날) 實施한 第3回 全國速記競技大會에 즈음하여 等閑視되었던(?) 出題上의 問題點과 採點上의 問題點의 內容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出題上의 問題點

- 가. 品詞別 出題比率의 基準
- 나. 出題範圍의 基準
- 다. 難易度의 測定과 그 配分比率의 基準

2. 採點上의 問題點

- 가. 漢字混用의 경우의 採點基準
- 나. 現行의 添字, 誤字, 脫字의 採點

基準의 妥當性 與否

다. 表音文字가 大部分인 速記原文의 翻文에 있어서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의 문제.

다. 翻文時間의 適正 基準問題.

이와같이 여러가지 문제가 앞으로는 계속 改善 補完되어야 할 素地가 많은 研究 對象이며 이번 第3回 速記競技大會에서는 特別히 人間의 速記能力 限度測定의 一環으로 速度部門의 競技種目을 追加하여 實施한 바 現存 速記術의 能力과 可能性을 어느정도 測定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收穫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또한 強調하고자 하는것은 第1회에 이어 第2回, 第3회에 이르는 동안 受賞者들의 記錄이 漸次 向上되어가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速記의 能力도 눈에 보이지 않게 陰地에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歲月과 더불어 成長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따라서 흐뭇한 感을 禁할 餘地는 尙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人間의 活動의 많은 部分을 「컴퓨터」가 代身해가는 時代에 살고 있느니만큼 速記의 機械化 「컴퓨터」化가 眞摯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部分에 대한 研究開發도 竝行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國會 速記課)

III. 受賞 所感



320/1 + 395/1 = 「그랑쁘리」?

趙 正 昫

“원숭이「X」구멍은 빠알개, 빠알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건 汽車, 汽車는 빨라, 빠른 것은 速記(?)……”

「콩코오드」가 날고, 「폴롬비아」號가 宇宙를 飛行하는 이 時代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고 또 볼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速記와 生活을 같이하는 나에게 速記는 汽車보다 빠르고 飛行機보다 빠르다는 감상에 젖는다.

먼 들판을 달려가는 汽車나 머리 위를 날아가는 飛行機는 아무리 쳐다봐도 視野에서 한참동안 벗어나지 않은 하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그러나 速記는 그렇지 않다. 1分當 395字! 이 速度는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어도 수십번은 볶아 먹을 수가 있는 速度가 아닐까 한다.

한번 지나쳐 버리면 아무리 氣를 쓰고 생각하거나 記憶을 해 내려고 애써 봐도 헛수고에 불과하다.

速記! 그것은 무조건 速記符號를 이용하여 받아 쓴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받아쓴 것을 正確히 우리 글로 다시 翻文하여 一般 文字化하는 過程까지를 要求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速記를 배우기 시작한지 벌써 8年, 國

會에 처음 들어와서 그 무시무시한(?) 國會議員들 가운데에 앉아서 實務을 하던 때나 지금이나 뭘리고 어리둥절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速記가 어려운 탓일까? 아니면 大凡하지 못한 性格 탓일까?

그러나 막상 相對方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다. 文字 그대로 沒我의 境地에 이른다.

이런 全國競技大會에서 99.4% (320字/分, 290字/分)의 正確度を 보였고 分當 395字(2分間 90%)의 速度까지 記錄을 해서 영예로운 大賞을 차지하게 되었다. 새삼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성적이 疑訝스럽기도 하다. 速記라면 난고 귀는 綺羅星 같은 先後輩 同僚들께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 아마도 양브의 美德이 아닐까?

마침 그날 (10月 9日) 아침 世宗大王이 現夢했다는 내 꿈 얘기를 듣고 조용하게 웃어주던 내 아내의 激勵 덕분인지도 모르겠다.

99.99...%의 確率을 가지고 宇宙旅行을 하는 「컴퓨터」時代! 速記 또한 이러한 「컴퓨터」에 못지 않는 완벽함을 요구하니 그 어려움이란 不問可知. 그것은 아마 생속성과 精確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위 速記의 二律背反性 때문일 것이다.

이번大會의 大賞! 個人的으로는 더욱 速記에 대한 愛着과 矜持를, 나아가서는 國會速記士로서의 責任感과 使命感을 더욱 堅實하게 느끼게 되었다.

速記, 速記士, 國會議員, 國會 그리고 國會速記士…… 現代議會民主主義가 채택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記錄의 重要性을 인정 速記士가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 역시 三位一體의인 速記에 의해서 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如何한 速度라도 正確히 ① 듣고, 正確히 ② 理解하며, 迅速히 ③ 記錄하는 過程을 거치게 마련인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速記士라고 해도 正確히 들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速記는 不可能하게 되고 또 설사 正確히 들었다고 하더라도 理解를 못하면 記錄과 文단에 完벽을 期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의 두가지 過程을 無難히 거쳤다고 해도 相對方的 發言速度에 맞추어서 迅速하게 따라 적을 수 없다면 速記士로서의 使命

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모든 速記業務는 聒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國會를 보게 되면 本會議場은 議長席 바로 아래에 速記席이 位置하고 있어서 “앞전”, 그리고 各常任委員會는 中央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전”이 된다.

速記를 하는 速記席은 반드시 가운데에 位置하고 있어야만 比較的 正確하고 能率的으로 速記業務를 遂行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速記士는 아무리 못해도 “가운데 전”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議會의 比重이 높으면 그에 따라서 速記士의 役割도 커진다고 할 한다.

第3回 全國速記競演大會! 大賞을 차지했다는 기쁨보다 앞으로의 責任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그리고 앞으로 速記士는 “가운데 전”은 되어야 하겠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비단 나만이 갖는 착각은 아닐 것이다.

(國會 速記課)



(大賞을 받고 있는 趙正珣會員)

IV. 放 談

速記 競技大會를 마치고

出演프로 : KBS 第2「라디오」 아침의 「로터리」

出演者 : 朴 權 欽 會長 金 仁 寧 會員
金 基 英 會員 趙 正 陶 會員

日 時 : 1981. 10. 14 (8:10~8:30)

場 所 : KBS 第2 「라디오」 「스튜디오」

司 會 : 맹경순 「아너운서」

○司 지난 10月 9日 한글날에 國會 速記士養成所에서는 第3回 한글 速記 競技大會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랑프리」, 大賞者도 決定되고 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읍니다. 여 기 몇 분의 손님을 모셨읍니다.

大賞을 타신 趙正陶씨 그리고 大會進行 委員長 金基英氏, 審査委員長 金仁寧氏, 그리고 大韓速記協會 會長兼 이번大會 大會長이신 朴權欽議員, 비 분의 손님께서 나오셨읍니다.

우선 大會가 어떠한 大會였고, 어떠한 분들이 참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金基 이번 大會가 全國規模大會로 서 第3回 大會가 되겠습니다.

全國에서 가장 速記에 자신있는 41명이 參加를 해 가지고 이번에 大賞에는 國會 事務處所屬 조경주씨가 되겠습니다.

○司 國會事務處 所屬 職員들이 많 이 參與를 했읍니까?

○金基 그 中에서 3分之1 정도가 國

會事務處 速記士들이 參與를 했읍니다.

○司 그러면 어떤 基準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는지 金仁寧氏께서 말씀해 주시 지요.

○金仁 이번이 세번째 大會입니다마 는 전에 있었던 競技大會와 比較해 가지 고 상당히 質的인 向上이 있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심사기준은 時間關係上 자세 히 말씀드릴 수 없고 大賞을 탔던 趙正陶氏는 正確度 部門에 99.4%라는 경이적인 成績을 올렸읍니다.

參考 삼아서 1회와 2회째의 結果를 말씀 드리면 1회째는 98.6%, 2회째는 99.1% 이와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 速記 士들의 質이 向上되고 있다는 것을 덧붙 수가 있겠습니다.

○司 잠시 후 자세한 競技를 여쭙어 보겠습니다마는 大會長으로서 國會議員 朴權欽 議員님께서 나와 제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名譽職으로서의 會

長職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實質的으로 速記技術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언제부터 速記를 배우셨습니까?

○朴 제가 社會에 進出할때에 速記를 배워가지고 했습니다. 速記를 배워서 익혔기 때문에 新聞社에 速記士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契機로 新聞記者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新聞記者 生活를 契機로 특히 政治部記者로 오래 일 하다 보니 政治에 관심있게 되어가지고 國會議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人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契機를 만들어 준 것이 速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速記를 했기 때문에... 또 速記를 한 사람으로서 大韓速記協會會長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司 지금 國政을 살피는 분당한 일과를 보내고 있겠는데요. 現 生活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朴 現在도 어떤 분의 말 가운데 꼭 내가 이것은 그대로 記錄해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速記로서 記錄합니다.

가령 國會에서 質問이나 行政府側의 答辯을 듣는 과정에서 저 말은 내가 記錄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問題 삼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대로 記錄해 두면 그 表現 그대로 나중에 問題를 삼을 수 있습니다.

○司 朴權欽 議員께서 速記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政府 答辯者들이 바짝 긴장하시겠습니까.

(일동 웃음)

그리고 大賞타신 趙正昉氏가 나와 계신데요. 미혼이시라면서요?

(일동 웃음)

몇 번째 참가했습니까?

○趙 이번이 처음 했습니다.

○司 速記를 배우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趙 75年度에 시작했으니 6년쯤 된 것 같습니다.

○司 速記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유에서 시작했습니까?

○趙 저는 우연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당시 學校를 卒業하고 마땅한 就職자리도 없고 進學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機會에 國會速記士 養成所에서 學生을 모집한다는 新聞廣告를 보고 시험을 쳐서 合格된 것이 契機가 되어 우연하게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司 처음 試驗 볼 때에는 어떤 科目을 보았습니까?

○趙 英語, 國語, 그리고 論文 세 科目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에는 잘 보았다고 생각 안했는데 合格이 되었습니다. 경쟁율이 약 10對 1쯤 된 것 같아요. 우연히 合格이 되었는데 그것이 제가 速記士가 되기 위해서 合格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司 速記라는 것이 가령 「그랬습니다」하면 완전히 正字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것이 아니지요?

○趙 그렇지요.

速記를 배우게 되면 처음 3個月 동안은 基本文字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 3個月 동안은 縮略法을 배우고, 그 다음 6個月 이후부터는 「스피드」연습을 하는 期間이 됩니다.

○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符號로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一般文字로 整理
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趙 그렇지요.

○司 그러면 「스피드」는 그 사람의
才質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趙 그렇지요.

速記라는 것은 才質이 약간 필요한 것같
아요. 努力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마는
才質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司 그러면 競技大會에 말하자면
심사기준이 正確性이라든가 「스피드」라는
것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스피드」가 어
느정도 따라가야 또한 정확하게 기록이되
겠지요. 어느정도 빠른지 그것을 지금 녹
음을 갖고 나오셨는데요. 어느정도 빠른
지 제가 잠깐 「라디오」를 듣는 분을 위해
서 들려드리겠습니다.

(395字 낭독 녹음「테이프」 들려 줌)

라디오를 듣는 분 이것이 어떠한 얘
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몇 字
정도나 됩니까?

○金仁 처음에는 分當 400字를 準備
했는데 읽는 사람이 미처 400字를 朗讀하
지 못했습니다. 1分當 395字가 되겠습니
다.

이렇게 낭독한 것을 速記文字로 받아써
서 일단 原稿紙에 옮겨 쓰는데요. 그것과
이 녹음을 다시 對照를 해서 빠뜨린 글자
또는 잘못 쓴 글자 첨가된 글자를 계산하
여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99.4%라는 正確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司 심사할 때 99.4%는 正確도이
고요. 그 다음에 最高 速度競技는 1分當
몇 字 정도를 받아쓰는 것이 最高 記錄입

니까?

○金仁 最高記錄이라는 것은 우리가
400字 이상은 現在 朗讀을 못하는 형편이
니까…… 最大限 말씀을 빨리하시는 분도
300~400字 이내다. 그렇지만은 후 어느
國會議員께서는 과거에 400字를 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실 적에 순간적으로 400
자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司 순간적으로 말이 많이 빨리 進
行될 때 그렇다…….

○朴 이 機會에 速記라는 것을 설명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速記라는 것은 글씨를 갖다가 빨리 쓰
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符號로 받아 써서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文章을 만
드는 것입니다.

全國에 職業人으로서 速記業務에 종사
하는 사람은 한 200餘名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發言速度는 250자~300
자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速記士를 몇단계 級을 나누고있
는데 最高가 1級입니다.

1級은 1分當 320字 이상 2級은 300자이
상, 3級은 280字 이상…… 보통 1.2級은
되어야 완전하게 速記士로서 지장없이 일
을 할 수가 있습니다.

○司 一般人으로서 어느 정도나 배
워야만 되는지요?

○朴 專門인 速記士로서 일하는사
람이 아니고 보통 생활에 활용한다고 그
러면 200자는 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速
記士로서 實力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1
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통 職業 이
외에 生活에 활용하려고 하면 3個月 이상

6個月 정도는 해야 됩니다.

○司 실례지만 林權欽議員은 國會에서 빠르게 말을 하실때에는 1分當 몇 字 정도로 發言을 하시게 됩니까?

○朴 제 자신이 이것을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는는 제 말은 경우에 따라서 빠른 편입니다. 260~300字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司 이번이 大賞을 타신 趙正陶氏, 이 速記라는 것이 國會 速記士 이외에 어떤 分野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趙 제가 생각할때는 大學에서 講義를 받아 적는 경우가 참 좋은 경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 「메모」한다거나 日記를 쓴다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 「러시아」의 大 小說家였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의 秘書가 速記士였습니다. 그래가지고 著作活動을 갖다가 速記士에게 자기의 構想을 口述해서 그것을 秘書가 다시 整理를 하는 式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國內에도 그러한 速記士를 活用하는 作家가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司 그러니까 자기가 口述하면 그것을 속기로 받아 적어서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趙 예, 그렇습니다.

作品을 量産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司 國會議員들의 發言이 빠를 때에는 1分間에 몇 字 정도나 됩니까?

○趙 순간적으로는 1分間에 400字가 훨씬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速記를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2인이 1組가 되어서 같은 內容을 두 사람이 記錄하고 또 對照를 해가지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400字 이상의 발언도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司 放送도 中繼放送이 가장 말이 빠를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어떤 競技가 가장 빠르든지…….

○金基 中繼放送에 있어서는 농구경기가 「스피디」한 경기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를 中繼하는 「아나운서」들의 發言速度를 측정한 결과 1分間에 390~450字 정도의 속도로 中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체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學生들한테 왜 速記가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면, 速記를 배우게 되면 聽取力이 늘게 되고 聽取力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의 말을 정확하게 듣기 때문에 學習能力이 향상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속기를 하게되면 어떤 말을 했는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學生들의 判斷力이 올라가게 되어, 자만히 學業成績이 향상되고 또한 남보다 선생님의 말을 많이 들어서 필기를 해 놓으니가 試驗時 때에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어릴때부터 速記를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司 이 速記士로서의 進出 展望이 어떻습니까?

○金基 현재 우리나라는 進出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展望은 좋으리라고 봅니다. 美國같은 데에는 職業速記士가 1萬 2,000명이 있고 日本도 1年에

자격시험 應試人員이 5,000餘名이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년에 200餘名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司 오늘 네 분께서 速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大韓速記協會 會長으로 저신 朴權欽議

員께서 나와주셨고, 10月 9일에 있었던 한글 速記競技大會에서 大賞을 타신 趙正昫氏, 그리고 進行委員長 金基英氏, 심사 위원장이신 金仁寧氏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第3回速記競技大會 任員陣과 受賞者들의 모습〉

☆ 名言散策 ☆

모든 것이 같은 것의 반복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가 과거의 되풀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레 겔—

만일 네가 네 인생을 사랑한다면 네 시간을 사랑하라. 왜냐,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웃음 속에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위력이 센 에너지가 숨어 있다. —H. 뷔—

한탄하는 것이나 울며 슬퍼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다 비겁한 것. 길고 고달픈 너의 임무를 힘껏 다 하려구나.

운명이 그대를 들어넣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그리고 피로와하며 죽으려구나, 나와 같이 묵묵한 태도로.

—비니(Vigny)의 늑대의 죽음에서—

더 펠이 旅行記

金正德



人生은 쓸쓸한
거렸지.

그래서 男子들
은 一杯一杯하면
서 人生은 쓸쓸해
서 좋은 거라고
하고 女人네들은
이가 시린 한겨
울밤에도 한껏 사
랑을 생각한다고
했지.

조금은 혈명한 바지를 입었다는 단 한
가지 理由만으로 명칭하다는 바보스럽다
는 그래서 人間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많이씩 웃어가면서 살아가는 人間的인 人
間이 축은할만큼 그리워지는 것은 켈까?

× × ×

오래 전부터 休暇를 어떻게 보내리라
構想하지는 않았지만 休暇를 申請하라는
指示(?)가 내려온 이후 부터 “당신 電話
지는 것을 들으니 몇 번 雪嶽山과 東海岸
을 갔다 온 것 같으니……” 하는 반은 야
유적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雪嶽登頂과
東海岸을 가기 위한 계획으로 출발 전전
달인 7月 30일까지 나는 事務所 霧靄氣를

온통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해 버리고 말
았다. 한 마디로 惡童으로 히트(?)를 치
고 마는 決定的인 순간이었다. 그 끝에
멋있게 간다고 “沼陽江‘덱’에서 배를 타
고 인제나 양구까지 가서 뭐 어쩌고 해
서……”를 하려고 사방에 전화, 주위에선
조소와 재미가 결들인 웃음과함께 내 먼
져지는 말들……. 하지만 事前準備徹底라
는 「모로」 아래 또 한편으로는 작은 일이
지만 企劃을 한다거나 어떤 案을 짜 본다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격려를 받으면서 여
러 先驗者들에게 문의를 해서 所要時間
費用 및 留意事項을 일일이 파악하여 정
리를 해 놓았다. 시셋말로 準備 하나는
기차게 해 놓은 셈이었다.

隊員은 學校「클래스메이트」이지만 나
보다도 더 年輩인 T兄과 C兄 그리고 나
모두 3名이었다.

D-day! H-hour!

C兄과 T兄은 어렸는지는 모르지만 나
는 잔뜩 풍선처럼 부풀었다. 어쩌면 부풀
다 못해 두번 정도 터졌는지도 모르는 일
이었다.

× × ×

그래 인간이란 게 별게 아니란다. 다

똑 같이 밥 잘 먹고 「X」 잘 싸고 맛있는 거 좋아 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가끔은 末梢의인 자극에도 솔깃해 지는 게 잘난 인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별스럽게 못난 人間이라고 해도 살지 말라는 법은 없단다. 푸른 하늘은 언제나 내 등 뒤에 있다고 믿으며 오늘도 더떨거리며 살아도 괜찮단다.

X X X

아뭏든 우리의 「팀 썩」은 出發하면서부터 편가를 보여 주는 것 같았다. 한 명은 미처 準備하지 못한 非常醫藥品과 밀반찬을 사고 더떨이는 한시간여를 기다리며 圓通行 票를 마련하고, 무슨 金鑲이나 낚속에 그리던 新天地를 찾아가는 듯한 希望을 가득가득 담은 일꾼 일꾼들을 헤치면서 우리「팀」은 겹짜게 승차하여 점잖게 좌석을 확보하였다. “드디어 우리는 간다! 간다!”를 속으로 외치고 더떨이는 더욱 더욱 기분이 좋아 웃기까지도 했다.

더떨이는 꽤 웃기도 잘 하지만 남도 잘 웃기는 것——어찌된 嘲笑거리로 만드는 지도 모르지만——도 잘 해치우는 것 같았다. 자기가 뭐라고 그 복잡한 車 안에서 詩集씩이나 보여……아뭏든 그 꼴볼견을 보고도 남이 웃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정확하게 마장동에서 13:00에 出發, 13:40에 양수리, 14:10에 양평, 15:20에 흥천, 16:30에 신남, 17:45에 원통에 倒着하여 첫날밤은 잘 먹어야 한다는 더떨이의 악습과 억지로 돼지고기 1근과 「사라다」용 과일을 사고 다시 17:40에 용대리로 出發하여 18:40에야 始發點인 白潭寺入口에 겨우 도착했다.

그래도 더떨이 일행의 前道는 매우 온 좋게 시작되고 있었다. 원통에서 용대리까지 가는 2km 남짓한 길은 路幅이 좁은 單一路이기 때문에 양쪽 入口에 설치된 軍哨所가 電話로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一方通行을 교대로 시키게 되는데 운전사 아저씨 말씀에 의하면 보통 한 쪽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떨이네는 약 30分정도—21臺 지나감——만 기다렸으니 말이다.

白潭寺入口에 내린 더떨이 일행은 집과 「팀썩」을 再整備하여 白潭寺를 向하여 도보로 출발하기 시작했다.

약 1시간 반동안 걸었는데 중간쯤 부터는 달빛을 받아가며 먼 구성진 풀벌레 소리도 들어가며 간간히 어둠을 가르며 반딧불을 보고 좋아하며 걸다가 더떨이는 제일 쳐졌지만 무사히 白潭寺에 20:30에 도착.

자 이제부터는 꿈같은 숙영! 일행은 일단 「베트」를 치고 가장 즐거운 취사 준비로 들어갔다. 이날의 「하이ไลท์」는 고량주를 기울여가며 돼지고기로 「로스쿠이」를 해 먹는 거였다.

쏟아지는 별빛과 맑고 신선한 自然의 숲소리, 사랑하는 女人네가 옆에라도 있으면 더 딱히 좋을 분위기 속에서 더떨이 일행은 主題도 없는 옹근 靈魂들의 이야기기를 끝없이 엮어간다. 사람들의 얘기——이날의 취침은 24:00. 그런데 더떨이는 무엇을 기록한담시고 끄적이다 조금 늦게 잤는가 보다.

8月 2日 06:00. 아침이 삼패도 했지만 약간 쌀쌀한 기운도 감돌았다. 아마도 태풍 10호 「오그런」의 영향때문이었으리라.

아침은 어제 먹다 남긴 찌개와 밥을 다시 데워 먹고 雪嶽을 무절터 小靑이와 大靑이를 구해 내려는 준비 완료가 07:50분 일단 준비된 짐을 두고 白潭寺 구경을 하는데 더필이는 그 白潭寺에 대한 內譯을 적기 시작했다.

新羅 眞德女王(647)때 자장법사가 創建했으며, 寺名은 한계사, 운흥사, ……백담사, 심원사 등으로 改稱되어오다가 李朝 正조 7년(1783)에 다시 백담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쭉 그렇게 불렀고 이 절의 유명한 僧侶는 허응당 보우대사, 만해 한용운등이며 현존건물은 1919년에 重建됨. 또 더필이는 절을 대강 그렸다.

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大雄殿, 문과 大雄殿 사이에 높은 花壇이 있고 대웅전 좌측엔 이 절을 찾는 손님의 숙박시설이 있고, 대웅전 우측엔 승(僧)들의 居處가 있고 특히 문 양쪽에 토종꿀벌통이 기실 개 있어 꿀벌들이 앙잉거리는 것이 멋이 있음.

그리고 대웅전 石壇 비 귀퉁이에 에주딩이같이 둥그런 돌이 올려져 있었고 그 돌을 꼬마돌로 받쳐놓고 있다는 것도 더필이는 빠짐없이 기록했다.

사진을 찍어가며 C兄은 손님 숙박 시설 뒤에 있는 용상도 들여보며 白潭寺 관광을 끝내고 08:10분에 더필이 일행은 대청이에게로 출발하기 시작했다.

백담산장 앞의 이정표에는 大靑 13km로 되어 있었고 이 이정표를 벗어나면서 부터는 눈앞에 전개되는 계곡과 물소리에 흥이난 더필이 일행은 노래를 부르며 登行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레도 짧은 총각들이라고 1km를 10분

에 주파하면서 09:15분에 오색암과 수렴동의 분기점을 통과하여 가는데 09:30분쯤에 이 旅行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두고 두고 얘기거리가된 殺蛇事件이 일어났다. 主犯은 C兄이었고 裝備提供 및 共犯者는 역시 더필이었다. C형과 더필이는 일을 성취하고는 앞서가고 있는 T兄을 소리쳐 불렀다. T兄은 이 殺蛇魔들을 너그러운 너털웃음으로 환영하면서 비얇이의 性別을 확인한다 하여 더필이 일행은 또 한번 자지러지며 크게 웃었다.

정확하게 10:00에 수렴동 대피소를 지나 계곡과 물소리에 묻혀 흥얼대며 가다가 모두들 쉬면서 비얇 시식을 하자는 더필이의 提案에 同意. 물론 요리에 들어가기 전에 난생 처음으로 잡은 비얇이와의 기념촬영을 잊지 않았다.

더필이는 「버너」와 「그릴」 교추장 김치를 쟁싸게 꺼내 준비완료를 마침과 동시에 주석잡기에서부터 밤하늘의 별자리까지에도 능통한 C兄이 비얇이의 접질을 벗기고 몹을 분배했다. 더필이 일행은 그저 좋았다. 계곡에 묻혀서 아니면 더필이 'S분위기에 묻혀서인지 마냥 좋아들 하며 교량주와 함께 비얇 시식을 하는데 더필이와 T兄의 정신을 딴 곳으로 팔리게 해 놓은 C兄이 쟁싸게 비얇이의 거시기를 달취해 갔다. 언제나 너그러운 너털웃음을 하는 T兄은 비얇이의 거시기도 좋지만 꼬리도 그에 못지않다고 하면서 꼬리를 더필이에게 주었다. 이때부터 T兄은 C兄을 “毒蛇” 더필이를 “毒蛇꼬리” 혹은 “꼬리”로 지칭했는데 그 「니네임」은 재마 있게 들렸고 그 「니네임」을 부를 때 파생되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룻만에 大靑

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또한 그 「닉네임」은 學校에서도 우리끼리 만나면 가끔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웃기도 하며 장난도 치곤한다.

더필이 일행은 11:15쯤 다시 집을 정리하여 쌍폭으로 향했다. 쌍폭 못 미쳐서 점심을 먹었다.

하늘이 찌푸들었다. 뚱뚱이도 안 맛을 만큼 비는 성기게 내리고 있었다. 많은 비가 아니면서 가끔 성긴 비가 오는 것은 태풍의 영향인 듯 했다. 이러한 天惠의 기상조건과 비암이의 덕분에 더필이 일행은 웬만큼 경사진 곳도 10분에 1km씩 주파할 수 있었고 하룻 만에 대청봉을 오를 수도 있었으리라.

그래도 더필이네는 “오늘 정상 건복 못 하면 내일 하지”하는 느긋한 마음으로 강행군보다는 쉬엄쉬엄가며 浩然之氣도 배워보고 절경도 감상해가며 가곤 했다.

14:15쯤 쌍폭에 도착하여 기념 촬영. 대청봉까지 5.5km前. 그런데 14:30경 봉정암으로 오르는 가파른 길에서 T兄이 불의에 부상을 입었다.

이제 막 30을 내다보는 나이여서 더필이와 C兄보다 힘이 더 든다면 높은 곳을 오를 때는 잠시 멈추었다가 용을 쓰며 오르는게 그때 바로 위에 있었던 뭍새 늪의 소나무 뿌리가 T兄의 머리를 강타했던 것이었다. 더필이 일행은 초진장, 더구나 T兄의 머리에 뺨다가 메는 손에 뭔가 붙어 나오는 것을 본 더필이 일행은 초초진장!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아 담배로 지혈을 하고 찬바람과 물기가 들어가자 말라고 아줌마처럼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계속 전진. 그러함에도 T兄은 너그럽게 너털

웃음을 터트리며 더필이와 C兄을 격려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해서 15:25에 봉정암에 도착(대청봉 3.5km前) 더필이 일행은 예서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다 들쭉날을 맞을 것이냐 그냥 청봉이 한테 가느냐를 속의했다. 결론은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 편히 가는 것이 더 나을테니까. “못 먹어도 「고우」”였다. 잠시 쉬었다 재 정비하여 大靑峯을 향해 더필이 일행은 출발했다. 지팡이 용으로 쓸 도사 막대기 하나씩을 들고…….

봉정암을 조금 벗어나 大靑峯을 2km 남짓 남겨 놓은 지점부터는 高山植生帶라 대부분의 나무들은 키가 작은 것들이고 항상 구름이 끼어 있어서인지 작은 나무들에도 蓊蒼가 고즈넉하게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이 지점부터는 물려오는 구름으로 해서 더필이 일행은 걸 옷과 머리가 젖기 시작했다. 그래도 강한 바람이라든가 塞氣같은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17:15에 小靑峯에 당도.

아주 늦은 時間은 아니지만 산에서의 안전을 위해 日程表에 의한 大靑峯→죽음의 계곡→회운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청봉까지 갔다가 다시 小靑으로 내려와 회운각으로 갈 것이냐를 熟議하다가 小靑峯 巨商(?)에게 물어 본 결과 죽음의 계곡 登山路는 폐쇄되었다 해서 後者로 결정을 보고 巨商(?)에게 장간 길을 맡기고 빈몸으로 出發. 빈몸이라 날아갈 듯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더필이 일행은 막 뛰어가려는데 웬걸 지금까지의 피로가 겹쳐서인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었다.

대청봉에 가까이 갈 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었고 구름이 동반하는 습기와, 塞氣

가 더해 추워마져 느꼈다. 18:00에 대청봉을 정복.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메달」을 하나씩 들고 기분이 좋아서 다시 小靑으로 되돌아 왔다.

이때 인상 깊었던 일은 雪嶽의 主峯인 大靑峯까지 오르면서 많은 樂山人들과 “수고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를 계속 주고 받았던 일이었고 또 하나는 발 뒷꿈치를 완전히 들고다니는 소아마티 靑年이 빈 몸이 아니라 완전무장(?)을 한 몸으로 경사가 급한 길은 동료들과 「로프」의 보조를 받아가며 大靑과 만나 악수를 나누는 어떤 人間의 意志를 본 것이었다. 人間이라는 自體가 연약 하면서도 반면에 숭엄하고 아름답기도한 것이라고 느껴졌다.

小靑峯으로 다시 온 더필이 일행은 회운각으로 발길을 향했다. 회운각에 도착하니 20:00. 완전히 16km를 12時間동안 행군을 한 더필이 일행은 기진맥진이었지만 서로를 격려해 가며 戰列을 가다들어 「텐트」를 치고 저녁을 먹는데 너무 피곤해서인지 그렇지도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던 더필이도 겨우 채면만 유지할 정도만 먹고 나가 떨어졌다. 그래도 모두들 잊지 않고 수고했다는 말과 잘자라는 말들을 한마디씩 했다.

더필이는 「셰타」를 입고 잤는데도 새벽녘의 한기로 自動早起를 했다가 노련하고 풍부한 경험자인 C兄이 「버너」로 「텐트」안의 공기를 덜힌 덕분에 다시 8시까지 잘 수 있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래 어제밤은 “바람불었어도 좋은” 날이었다.

8월 3일 아침은 역시 어제 저녁 먹다가 남은것을 먹고 더필이 일행은 마음이 부풀기 시작했다. 洛山에서 18:00에 만났던 J兄과 그 일행들을 생각하며 휘파람을 불며 짐을 꾸렸다.

그때부터는 소위 外雪嶽이었다. 더필이 일행은 별것은 아니었지만 小靑이와 大靑이를 만나고 가는 길이라 신나있었다. 계속되는 흥겨움과 여유로 양쪽과 천불동계곡을 지나왔다.

정말 外雪嶽의 경치는 內雪嶽보다는 훨씬 좋았다. 기암절벽과 수많은 峯들이 이루고 있는 萬像들 그리고 여느 산에도 있는 작은들과 나무들도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外雪嶽 「코스」 보다는 內雪嶽 「코스」가 더 쉬운 것 같았다. 그것은 白潭寺에서 大靑까지가 13km인데 반해 飛仙臺에서 大靑까지는 8km라는 것을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있었다.

산과 물에 취한 더필이 일행은 쉬어가며 얘기해 가며 자지러지며 내려갔다.

T兄의 너그러운 너털웃음.

더필이의 제 멧에 겨운 흥얼거림.

C兄의 멧짓 노래.

그리고 계곡과 봉우리들.

이 모든 것이 한때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루며…….

(國會 速記課)

定期國會 速記席

鄭 珠 鉉

부족한 人員으로 초비상 속에서 막을 올린 定期國會.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었지만, 연일 계속되는 13個 常任委 同時開議와 夜間會議 繼다가 한몫 빠질세라 열리는 豫決委.

그러다 보니 常任委와 豫決委의 시간 「머블」 사태로 제장님들께서도 시간조정 에 진땀을 흘리시게 되고, 결국 「主務는 常任委로 副務는 豫算委로」라는 비법(?) 까지 등장하게 된 108回 定期國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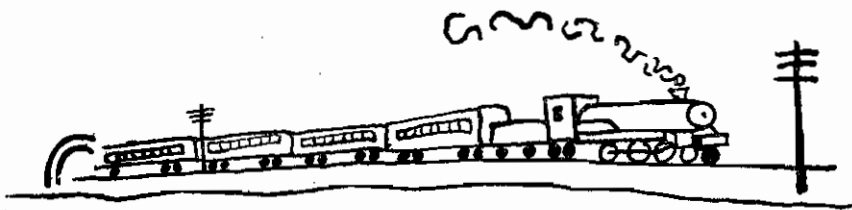
3, 4층 會議場에서 6층 事務室까지 올라갈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어 會議場 주위를 맴돌다 다음 시간에 맞추기 바쁘고, 한시간 또 한시간 흘러 21時, 22時. 그러다 24時…… 길어지는 會議에 바쁜 틈새도 아까워라, 지친 손목을 재촉하여 하얀 원고

지에 「民心」을 한알 한알 옮기는 分, 時, 날들, 마음들.

이것이 지난 70餘日間の 우리 速記士 나와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비록 늦은 시간, 마음은 바쁘고 발걸음은 지쳤어도 오늘도 내가 해내고야 말았다는, 이 歷史的 證記를 내가 아니면 그 누가 할 수 있으랴는 자부심으로 이날을 기억하며 까만 밤하늘의 별을 길동무 삼아 돌아가는 길목에서 하루종일 곁에 있으면서도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친구와 “너는 오늘 會議場 몇번이나 들어갔니?” “예, 내가 그것 세어볼 틈이 있으면 내 얼굴 한번이라도 더 쳐다보겠다” 라는 대화를 나누며 머의도의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내일 다시 떠오를 태양을 생각해 본다.

(國會 速記課)



釜山 夏季速記 講習을 마치고

申 熙 東

第29回 夏季速記無料講習에 臨하여 速記의 大衆普及을 통한 速記人口의 底邊擴大라는 命題下에 釜山 高麗速記學院側의 要請과 이는 地方講習에 내해서 協會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지대한 關心事인 지라 本人이 3日 講師로서 命을받게 되었다. 이미 그동안 서울에서는 몇차례 講習에 參與했지만 地方에서는 처음이기에 여러가지 覺悟를 머리속에 그리며 7月 29日 午後 列車便으로 釜山에 당도하였다.

유난히도 더운 을 여름이지만 南郡인 港口는 바닷바람으로 시원할 줄 알았으나 暴炎의 度가 더한데 東區 草梁 3洞에 所在한 學院의 門을 두드리니 20餘年前 乙支路 3街 學院에서 같이 速記修學했던 大先輩 朴敬圭씨가 반가히 맞아준다. 學院을 살펴보니 事務室과 教室 3個동 50餘坪의 比較的 施設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날이 開講인지라 저녁에 朴先輩와 釜山 名物이라는 회 한점시와 쇠주 두어 초롱을 기울이며 앞으로의 學院展望과 講習方向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3日 豫定으로 朴先輩宅에서 本意아닌 宿泊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30日의 開講은 10時~11時班 8名, 12時~13時班 3名, 20時~21時班 19名. 合計

30名이란 적은 人員이지만 協會의 沿革과 講習의 趣旨, 그리고 速記의 必要性 需要處 등을 說明하고, 示範을 통해 速記의 有用성을 보인다음 受講生들의 신기한 눈 초리 속에 速記進度로 들어갔다.

여름이란 원래 더운거지만 連日 34度를 오르내리는 더위와 在學生班에서도 協會에서의 實務者라니까 보고싶어(?)하고로 몇 班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 自然扇風機밑에서의 하루는 中國人의 大陸인 大砲가 아닌 流汗三斗, 飲料水會社 돈벌이



만 잘 시키다 보니 늦은 저녁밥맛은 南海로 흘러가 버리고 코피가 난다는걸 實感하기는 몇 年만에 처음이다.

거리의 路幅이 좁아 좁 답답함을 주는 釜山에서의 3日째, 낮 班을 아침과 저녁 班으로 合班하여 두班으로 했다. 뽀뽀이 朴先輩의 個人的이라는 但書 아래의 好意로 太宗臺「드라이브」등이 아니었으면 지루한 時間이 더 하였을 것이다.

8月 2日의 資格檢定關係로 柳智永先輩께서 1日 下釜, 朴先輩와 함께 俗稱 자갈치시장 옆에서 旅館신세를 지노라니 客愁까지 느껴지는걸 보면 역시 사람이란 자기집이 제일인가?

資格試驗을 치르는 날은 日曜日인데도 缺員없이 27名 全員이 應試하여 4級에서 8級까지 5個級을 10時에서 12時 30分까지 끝냈는바 이번 資格試驗의 應試生中에는 釜山 電波管理局長의 配慮로 速記를 배운 職員 7名이 7級에 應試 全員 合格되기도 했다. 이는 電波管理業務에도 速記가 꼭 필요함을 證明하는 것이 아닌가 느껴졌다.

돌이켜보면 講習期間中 짧은 時間이지만 역시 南國의 氣質이 많은 탓인가 몇몇의 受講生은 熱意가 좀 부족한 느낌이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速記는 특히 억척같은 파고돌이랄까 끈기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어떤 目標을 定했으면 그 目標이 이루어 질 때 까지는 되도록 주위에 정신 팔지 말고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成功의 길이라는 게(蟹)의 故事를 講義時間에 引用하곤 했는데 즉 “계”가 成長하여 目標을 세우고 學校를 가니 先生님이 文明된 世界에서는

옆으로 건지않고 똑바로 걷는다고 가르친 후 바로 걷게 하였다. 그랬더니 學校에서는 바로 걷는데 집에가서 父母兄弟와 이웃을 보니 전부 2옆으로 걷는지라 다시 學校에선 옆으로 學校에선 앞으로 걸다보니 배우려는 目標은 좋으나 目標의 첫 段階부터 周圍條件에 어쩔 수 없이 정신을 팔다보니 그 目標은 안세울만 못하다는…… 그러므로 기왕에 마음먹고 시작했으니 速記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는 예기로 受講生들의 警覺心을 일깨우곤 했다. 그리고 受講人員이 적은데 대한 느낌인데 서울은 그동안 速記에 대한 認識이 많이 되었으리라고 보기에 앞으로는 地方에 좀더 關心을 갖는 方案으로 우선 講習時는 廣告를 地方紙에 體系를 갖추어 내고 講習時期는 물론 放學을 利用하는 것이지만 放學 一週日前에 끝나도록 日程을 잡으면 避暑를 끝내고 더 많이 受講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이번 講習期間中 學院 朴先輩의 陰陽으로 베푼 好意에 거듭 感謝드리며, 3日이라는 짧은 期間 受講生들과는 겨우 얼굴을 익히고 對話가 될만 했는데 요즘말로 정들자 이별이라서 좀 아쉬움이 많았지만 協會의 公務로서 熱誠을 다하자는 애초의 決心대로 한 名이라도 速記를 더 認識시키는데 나름대로의 最善을 다했다고는 생각하나 부족한 점이 없었던가 되새김 하면서 講習所感이랄까 拙文을 마칠까 한다.

(國會 速記課)

우리는 한 職場

出演「프로」: KBS「라디오」서울 幸福의 꽃바구니

出演者: 金彩榮, 崔禮淑, 孫在玉

日 時: 1981. 8. 28(9: 10~9: 50)

場 所: KBS「라디오」서울 「스튜디오」

司 會: 李美淑「아녀운서」

○司 저희 “幸福의 꽃바구니”는 매주 금요일에 職場女性들을 초대해서 그 職場과 職業에 얽힌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職場”이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速記士로 國會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여성 速記士 세 분을 초대했는데요. 제 원면에 계신 분부터 각자 성함을 紹介해 주실까요.

○金 안녕하세요. 金彩榮입니다.

○崔 안녕하세요. 崔禮淑입니다.

○孫 孫在玉이에요.

○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저희 幸福의 꽃바구니”에서는 職場女性을 모시고 그 職業에 얽힌 여러 가지 보람과 애환같은 것을 듣는 時間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분이 초대됐습니다. 그런데 國會速記士로서 일하신지는 몇 년이나 되셨는지요?

○金 저는 9년 되고 있어요.

○司 네. 이제 10년으로 접어들고요. 아주 「베테랑」이네요.

그리고 崔禮淑氏, 孫在玉氏는 어떠세요?

○崔 네, 저는 8년 됐습니다.

○孫 저는 7년 되고 있어요.

○司 네, 그러니까 9년, 8년, 7년 1년씩 先後輩가 되네요.

國會 速記士로 일하고 계신데 速記士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金 速記란 다른 사람들의 發言을 速記文字에 의해서 적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말로 다시 옮기는 것인데요. 보통 速記라고 하면 제대로 아는 분들이 드물어요. 대개 速記術로만 速記를 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速記를 하다보면 速記術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가 實務을 하다가 보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유능한 速記士가 되려면 우선

모든 것을 많이 알아야 돼요. 어느 發言이든지 그 發言을 듣고서 精確한 聽取가 있어야만 精確한 速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司 네, 國會速記士의 資格은 어떻게 되나요? 就職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孫 高等學校卒業 이상의 學歷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速記士 養成機關이 있어요. 저희의 경우에는 國會안에 國會速記士養成所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년 이상 敎育을 받고 그리고 다시 公務員 公開競爭 採用試驗을 봐 가지고서 들어왔어요.

○司 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셨군요.

그런데 速記士는 資格證이 있는 것입니까?

○金 네, 速記士 資格證은 1級에서 8級까지 있는데요. 보통 專門速記士가 되려면 1級이어야 돼요. 그런데 1級 정도면 1분에 320字를 써야 되거든요.

○司 그러면 굉장히 빠른 速度지요. 1분에 320字면 저는 뭐 따라갈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현재는 國會速記士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國會에 계신 분들 速記士가 모두 몇분이나 계세요?

○崔 지금 實務에 臨하고 있는 現職 速記士는 55명이구요, 그 중에 女子速記士가 28명이 되고 있어요.

○司 네 女子분들이 28명이군요. 그런데 國會速記士 여러분들이 未婚, 既婚 그런 것을 가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孫 네, 편찮아요.

○司 여러분들 아직 未婚이신데 結婚하시면 어떻게 그만두실 작정이세요 계속 하시고 싶으세요?

○金 個人 意見들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때 주어진 狀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司 그러니까 個人의 事情上 形勢上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速記士가 지금 國會에만 계시고 그 밖에 就業할 자리가 많습니까?

○崔 주로 速記士의 70% 이상이 國會에 就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法院에도 조금 있고 기타는 行政府에서 多數는 아니더라도 약간명씩 靑互臺라든가 總務處, 監查院, 國土統一院, 國家安全企劃部 등 이런데에 약간명씩 있고요. 國營企業體라든가 一般 私企業體에도 더러는 있습니다.

○司 네, 이 放送을 들으시면서 아! 나도 速記士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배워야 되나 궁금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速記士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孫 저희 國會안에 國會速記士養成所라는 機關이 있고요, 그리고 一般 學院이 한 서너군데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1년 이상 速記를 배워야 될 것이예요.

○司 여러분들과 같이 專門速記士가 되려면 얼마정도 배워야 됩니까? 期間으로 따지면…….

○金 專門速記士가 되려면 1년 이상 해야만 될 것 같아요.

○司 1년 이상 해야만 1級정도의 實

刀을 維持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英文 速記士들은 어떤가요?

○金 英文速記士는 지금 현재 需要處가 보통 外國人商社라든가 그런데에 局限되어 있거든요. 輩出된 人員도 數字的으로는 많은데요, 質的인 면에서 1級 專門速記士가 될 정도인 분은 거의 몇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英文이기 때문에 英語에 대한 「히어링」이 可能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배우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司 네, 여러분들은 「베테랑」速記士로 손꼽을 수가 있겠는데 무엇을 基準으로 삼게 되나요? 「베테랑」이라는 말을 듣게 되려면요.

○金 우선 實務를 잘해야 되겠지만 하다가 보면 우선 速記士로 1級이상 해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처음에는 經驗이 부족해가지고 會議場 분위기를 파악 못한다는가 자기가 충분히 아는 말도 못 알아 듣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분위기를 통해서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聽取가 可能하구요. 또 하다가 보면 자기가 모르는 專門的인 用語들이 많이 나오는데 多方面에 걸쳐서 모든 것을 어느 發言을 불문하고 정확한 聽取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갖다가 「베테랑」速記士라고 할 수 있어요.

○司 네, 그런 면에서 세분은 矜持를 많이 느끼시겠는데요. 그런데 國會에서 速記士로 일하다 보면 歷史를 생생히 記錄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가지 보람도 많겠고,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즐거움과 애환 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지요.

○崔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자신이 記錄한 것이 議會史에 길이 保存된다는 것,

어쩌다 저희가 오래된 速記錄을 資料를 뽑기 위해서 다시 들추어 보는 경우에 물론 여러 速記士들에 의해서 記錄된 것이지만 그중에는 자기가 과거에 직접 썼던 記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자기가 보면 다 알거든요. 아! 이것은 내가 쓴 부분이구나 해가지고 나도 議會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새로운 기쁨이 있고요, 항상 政策立案이라든가 政策決定에 있어 그 주위의 배경에 흐르는 분위기가 이런 것을 저희는 現場에서 직접 보고 記錄했기 때문에 보통 밖에서 決定된 事項만 보는 사람들 하고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司 네 그렇겠네요. 맨처음 速記席에 앉았을 때에 떨렸지요?

○崔 네, 몹시 떨렸어요.

○司 그때 어떻게 떨었고, 어떻게 失手도 했나 기억되시는 것 있으면 재미난 얘기 좀 해 주세요.

○孫 저는 제일 처음에 國防委員會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아트」를 갖다놓고 「브리핑」을 하는데 빨간 선은 어떻게 파란 선은 어떻게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저희 1級 速記士資格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經驗이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러가지고 그때 처음 들어가면 主務님 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저희 主務님이 그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굉장하 主務님이 우리 데 보이고 하늘같이 모셨던 생각이 나요..

○司 네, 崔禮淑氏는 어땠어요?

○崔 저 역시 비슷한데요. 맨 처음에 會議場에 들어가니까 저희 速記席

위치부터가 會議場의 제일 한 가운데 있고 또 報道陣들이 부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무비카메라」를 돌려대고 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서 議員님들의 發言內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速記를 하고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고 너무너무 난감해요. 그런데 지금 孫在玉氏도 얘기 했다가피 같이 들어가는 主務님께서 그것을 해내셨을 때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經歷이 쌓여서 그 위치가 되니까 그분들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돼요.

○司 金彩榮氏, 그러면 그 정도로 精神이 없고 떨리는 그런 것이 어느정도 빼야만 진정이 되고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나요.

○金 個人에 따라 다른데요. 한 1년은 精神없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때가지고 그 후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舊面인 분도 많고…… 저희 定期國會가 항상 9月 20日부터니까 가을에서 부터 겨울까지 열리거든요.

○司 이제 얼마 안났지요? 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金 네 며칠밖에 안남았지요. 그 期間을 한번 넘기고 나면 그렇게 떨리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業務上으로는 그때에도 약간 미숙한 상태이지요.

○司 네, 그런데 주위에서 國會에 出勤한다고 그러면 참 부러워들 하지요? 참 좋은 職場을 다니는구나 하고…… 그런데 막상 國會에서 일하면서 아무래도 國會議員들하고 많이 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一般人들의 말과 國會議員의 演說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텐데, 어떤 差異點

이 있는지요?

○金 보통 本會議 發言같은 것은 거의가 本人 자신들이 原稿를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특별히 흥분을 하시거나 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速記하기에 큰 陸路點은 없거든요. 그런데 13個 常任委員會가 열릴 때에는 發言이 좀 자유스러워요. 서로 다른 분야의 發言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도 討論을 하다가 보면 同時發言이 나올 때가 많아요.

○司 그러면 一般的으로 記錄하기가 어렵겠네요.

○金 네, 그런 陸路點들도 있고요 報道陣들의 「후랏쉬」 더뜨리는 소리, 또는 잠깐 사이에 「마이크」가 꺼진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13個 常任委員會를 열 때에 場內의 분위기 때문에 오는 그런 陸路點이 약간 있어요.

○司 네, 그런데 崔禮淑氏, 男性議員의 말씀과 女性議員의 말씀과 速記하기에 특별히 어렵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金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司 네, 비슷하군요. 그런데 國會 開會日이 얼마 안남았는데 國會 開會때만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밖의 다른 날들은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金 보통 다른 분들은 國會職員하면 國會가 열리는 期間만 생각하는데요 定期國會만이 國會가 아니고 臨時國會도 있고 또 常任委員會가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저희는 會議가 없더라도 명소에는 정확한 速記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多方面에

쳐서 노력을 해야 해요. 즉 自體敎育으로 語學敎育을 한다든가 漢字敎育에서 時事問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會議가 없더라도 國家公務員이니까 항상 9時에 出勤해서 6時에 退勤하고 있어요.

○司 네, 지금까지 速記를 꼭 해 오셨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速記는 어떤 것들이에요. 한가지씩 紹介해 주시겠어요? 孫在玉氏부터…….

○孫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나는데요.

○司 아까 放送 시작하기 전에 세분이 우리는 凍太體質인데다 生放送이라서 「마이크」앞에 갑자기 서면 떨려요. 그랬는데 이제 凍太體質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一同 웃음)

그러면 崔禮淑氏 좀 말씀해 주세요.

○崔 글썽요, 저의 경우에는요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이 있지만 具體的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연히 特定人物이나 特定事件에 대해서 言及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뭉하군요.

○司 네, 그러니까 具體的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것은 빼시고 말할 수 있는 狀況에서만 말씀해 주시지요.

○崔 저희가 꼭 速記를 하다보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速記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記錄해야 되겠구나 하는 使命感 때문에 그냥 긴장이 되어서 「불펜」을 왼 손에 힘이 썩어요.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司 네 金彩榮氏도 그렇겠지요?

○金 네, 저도 그런 經驗은 했는데요. 물론 다들 다르고 또 중요한 政策決

定을 하는 순간은, 모든 報道陣이라든가 國民의 눈이 한 곳에 쏠려있을 때 저희는 시간을 계속해서 교대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決定的인 순간에 자기가 速記를 하게 될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도 國民의 한 사람이면서 또 速記士로서 가질 수 있는 二律背反的인 感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速記를 하면서 굉장히 使命感 내지는 갑자기 떨리게 돼요. 그래서 速記하기가 보통때보다 오히려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있어요.

○司 네, 孫在玉氏, 그러면 國會에서의 生活이 어떤지 國會에서 勤務를 하면 어떻게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이에요. 하루의 日課 좀 대충 紹介해 주시겠어요. 다른 職場과 比較해서 어떻게 틀린지 아침에 出勤해서 주로 어떻게 午前時間을 보내고 점심시간을 끝낸 다음에는 어떤 式으로 業務處理를 한다든가 하는 얘기 좀 해 주세요.

○孫 저희는 會議가 있을 때에는 아침에 出勤해서 會議가 끝날 때까지 거의 시간이 없어요. 하루종일 일에 매달려도 어떤 때는 일에 몰릴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歷代議員들께서 發言하신 回數라든가 여러가지 資料 蒐集 및 整理도 좀 하구요. 또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個人的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많지요.

○司 네, 어려운 點도 많을 것 같아요. 國會가 開會되면 밤근무도 하게 되지요?

○孫 네.

○司 그럴 때에는 健康에도 자신들이 있어야 될텐데 健康管理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金 네, 健康은 모든 분들에게 다 중요한 것이겠지만 저희들은 業務가 集中의 일 때에는 굉장히 목주를 해요. 定期國會中에는 저희가 하루하루에 끝낼 수 없는 정도로 일이 많아요. 殘務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데 또 다른 面이 있거든요. 저희는 發言한 것을 썼기 때문에 빨랐든가 그러던 그 業務가 밀리게 되면 상당히 負擔感을 주어요. 量 자체가 아주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이 남더라도 항상 빨리 處理해야 된다는 個人的인 負擔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집에 싸 가지고 가서 싸 오기도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發言을 썼는데 자기가 쓰는 중간에 速記文字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바쁠 때에는 이것을 쓰면서 「체크」를 해요. 아, 이것은 이거다 하고 기억을 하려고 「체크」를 해요. 그런데 많은 일이 밀리다 보면 그 雰圍氣라든가 이런 것이 記憶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記憶力을 빨리 살리기 위해서 負擔이 빨리 와요. 그래가지고 定期國會中에는 저희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常任委員會가 항상 있으니까 아주 늦은 時間에 정말 通禁 가까운 時間에 들어가는 날도 많거든요.

○司 네, 밤을 새우고 들어가는 날도 있습니까?

○崔 그런 적은 없어요.

○金 남자 職員들은 같이 새우지요. 그런데 女職員들은 조금 늦은 時間에 먼저 보내 주세요.

○司 그러니까 通禁前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보내 주시고, 남자 速記士들은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으요?

○金 네.

○司 그러면 夜勤같은 것, 밤 勤務는 며칠에 한 번씩 하게 돼요?

○孫 그러니까 저희는 밤 勤務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議員님들의 會議時間이 길어지면 저희도 밤 勤務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司 速記를 하면서 錄音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崔 네, 本會議의 경우는 錄音을 하고 있고 常任委員會는 안하고 있습니다.

○司 그러니까 正確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무래도 歷史의 생생한 記錄들이니까 조금마한 誤差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崔 그렇지요.

○司 여러분들은 女性速記士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이 職業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세요?

○孫 네 저는 만족해요.

○司 그러면 앞으로 자기 後輩라든가 여동생이 速記士가 되고 싶다고 하면 권하시겠어요?

○金 그렇지요. 아마 女職員 大部分이 그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社會에 나와서 주위 同僚들과의 關係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가끔 듣고 있는데 저희는 先輩님들이 다 좋으신 분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雰圍氣가 다른 데보다 家族的이라고 할까 많은 人員이 勤務하고

있는데도 저희 課는 특히 速記라는 특수한 業務로 얽혀서 그런지 先後輩關係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만족해 하는 분들이 거의 大部分일 거예요.

○司 네, 세분의 얼굴을 보니까 다 만족하신 얼굴들이예요.

(일동 웃음)

女性の 職業으로 권할만 하다고 그러셨는데 권할만한 이유를 具體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金 저희는 業務 自體가 獨立的이라서 보통 자기 業務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요즘 女權伸張이 되었다고 해도 女職員들은 특수한 專門職을 빼고는 男子職員들의 補助業務를 하는 것이 거의 大部分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같은 業務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을 지는 뚜렷한 專門職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좋고요. 報酬面이라든가 기타 모든 면에서 같은 待遇를 받으니까 전혀 疎外感을 못 느껴요.

○司 그러면 國會速記士가 되려면 試驗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 試驗이라는 것이 定期的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缺員이 있을 때만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速記士試驗은 언제 있습니까?

○孫 그것이 꼭 어느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계속 1년에 한차례씩 뽑았는데 昨年부터는 아직 採用試驗이 없었어요.

○司 아까 會期가 시작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데이트」 할 時間들은 어떻게 내시지요?

(일동 웃음)

○金 저희가 會議가 없는 期間에는 다 定時에 退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時間이 충분한데 會期中에는 「데이트」 하는 분들은 아마 남자들이 時間을 느긋하게 잡으셔서 가지고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霧圍氣로 보아서 會議가 끝날 듯 하다가도 갑자기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1時間씩 길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時間을 연기한다든가 많이 기다려 주어야 할 것 같아요.

○司 네, 相對方이 조금 忍耐力이 많고 包容力이 많고 인자하신 분들이어야 되겠군요.

○金 그것은 누구한테나 통용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司 네, 정말 速記士로서 여러가지 보람도 많고 애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의 말 하나 하나를 놓치지 않고 옮겨 적었다가 다시 再演하는 것은 어쩌면 不可能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적에는…… 그것을 해 내는 분들이 바로 速記士 여러분들이신데 세심해야 한다는 點에서 女性에게 알맞는 職業中的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한 職場…… 오늘은 國會에서 일하시는 速記士 세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金彩榮氏, 崔禮淑氏, 孫在玉氏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일동 감사합니다.

用語解説 (15)

研究委員會

◎ 鑛業·鑛物の 探鑛 및 探掘과 이에 附屬되는 選鑛·製鍊 기타의 事業.

◎ 鑛業權: 登錄을 받은 일정한 土地의 區域(鑛區라 함)에서 登錄을 받은 鑛物과 이와 同一鑛床中에 賦存하는 다른 鑛物을 探掘 및 取得하는 權利.

◎ 租鑛權: 設定行爲에 의하여 他人의 鑛區에서 鑛業權의 目的으로 되어있는 鑛物을 探掘 및 取得하는 權利.

◎ 鑛區: 鑛業權을 行使할 수 있는 일정한 土地의 區域.

◎ 租鑛區: 租鑛權을 行使할 수 있는 일정한 土地의 區域.

◎ 單位區域: 經度 1分과 緯度 1分の差로 둘러싸인 4邊形의 區域(80헥타 約 80萬坪).

◎ 施業案: 探鑛 및 探鑛事業計劃案

◎ 探鑛: 地下에 賦存하는 鑛床을 찾는 것.

◎ 鑛床: 地下에 賦存하는 鑛物의 集合體.

◎ 探掘: 鑛物을 探掘하는 것.

◎ 選鑛: 探掘한 鑛石에 들어있는 有用鑛物을 無用鑛物과 분리하여 選別하는 것

◎ 指定鑛區: 開發을 促進할 필요가 있는 重要鑛種中에서 開發價値가 있는 鑛種의 鑛區로 動力資源部長官의 指定을 받은 鑛區.

◎ 鑛害: 鑛物을 探掘하기 위한 土地의 掘鑿 抗水나 廢水의 放流 廢石이나 鑛滓

의 堆積 또는 鑛煙의 排出로 인하여 他人에게 현저한 損害를 加하는 것.

◎ 德大: 鑛業權者가 아닌者가 鑛業權者와 鑛區의 一部 또는 全部를 用益物權의 對象으로 私契約(不法의임)을 締結하여 鑛業權의 目的으로 되어있는 鑛物을 探掘 取得하는 行爲를 말하며, 그 類型은 德大, 都德大, 分德大, 租借 등으로 大別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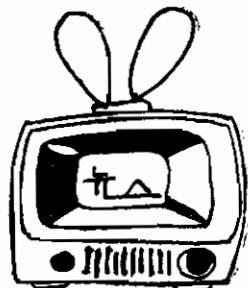
◎ 輸出前貸金融: 輸出金融業務에 쓰이는 用語. 銀行이 輸出業者등에 대해서 輸出品을 船積하기까지에 必要한 諸資金을 前貸하는 것으로서 일단 輸出契約이 成立된 후에 金融에 관한 일정한 要件을 具備한 어음에 대해서는 韓國銀行에 의해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이전의 生産段階에서의 모든 金融은 全部 이러한 金融에 속한다.

◎ 「플랜트」輸出: 商品 개개의 수출이 아니고 生産設備를 몽땅 합쳐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設備輸出이라고도 한다. 예를들면 發電設備·선박·차량설비·방적設備 등이다. 産業發達이 늦고 기술수준이 낮은 후진국이 先進國이나 中進國으로부터 生産設備를 수입하여 짧은 기간안에 産業發展을 이룩하려는데서 나타난 輸出形態다.

「플랜트」輸出은 금액이 워낙 크고 후진국에서 자금부담 능력이 없어 대부분 延拂 또는 借款을 取하고 있다.

「플랜트」수출 가운데 公營설치에서 가동까지 책임지는 「턴·키」(Turn-Key)「메이스」(일괄 수출)가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

소 식 란



〈涉 外 部〉

- 第28回 冬季無料速記講習(1月 12日부터 1月 31日까지)과 夏季無料速記講習(7月 30日 부터 8月 14日까지)이 서울의 東邦, 高麗 兩 學院과 釜山의 高麗學院에서 各各 實施 되었는바 그 受講現況은 다음과 같습니다.

(冬 季)

언 어 \ 내 용	접 수 인 원(명)	수 강 인 원(명)	수 료 율(%)
국 어	337	261	67
영 어	160	98	67

(夏 季)

언 어 \ 내 용	접 수 인 원(명)	수 강 인 원(명)	수 료 율(%)
국 어	187	134	65
영 어	97	53	65

- 지난 8月 30日 여의도에 있는 國會「테니스코트」에서는 第 1回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理事長杯爭奪 全國速記人「테니스」大會가 40餘名이 참가한 가운데 開催되었읍니다.
- 第10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가 10月 1日 韓國道路公社球場(板橋所在)에서 開催되었읍니다.
- 지난 10月 9日 한글날을 기념하여 10餘年만에 第 3回 全國速記競技大會가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韓國「바이롯트」 萬年筆社의 協贊과 韓國放送公社의 後援으로 성대히 開催되었읍니다.協會가 주최한 이大會에서 영예의 大賞은 議會式의 趙正昫會員에게 돌아갔읍니다.

- 8月 28日 KBS「라디오」서울 幸福의 꽃바구니 “우리는 한 職場”이라는 「프로그램」에 金彩榮, 崔禮淑, 孫在玉 會員이 出演하여 女性速記士들의 이모저모를 소개, 一般人的 速記에 대한 認識度を 높여 주었습니다.
- 10月 10日 KBS TV 2. “상쾌한 아침입니다”에 朴權欽會長 趙正喨, 李蓮姬 會員이 出演 速記競技大會에 관한 對談을 나누었으며, 또한 10月 14日 KBS 第2「라디오」, “아침의 「로터리」”에는 朴權欽會長님을 비롯하여 金仁寧, 金基英, 趙正喨 會員이 出演하여 역시 第3回 全國速記競技大會에 關連한 放談을 나누었습니다.
- 本 協會에서는 9月 19日 全國速記人住所錄을 發刊 全會員에게 配付하였습니다.
- 9月 27日에 施行된 國會速記職公務員採用試驗에서 鄭蘭(議會), 李大淑(東邦), 徐一順(東邦) 이상 3名이 合格하였는바 이를 축하하며 本協會 新入會員으로 加入된 것을 환영합니다.
- 國會事務處에 勤務하고 있는 會員들이 다음과 같이 昇進 및 轉補되었습니다

성	명	승진 발령	및 전보 일	현 소 속
신	새 화	2.	10	속 기 과 장
김	영 선	2.	10	자 료 편 찬 과 장
최	석 모	2.	10	경 위 과 장
서	병 운	2.	10	운 영 위 원 회 1법조사관
전	래 성	2.	10	보 사 위 원 회 1법조사관
송	기 철	2.	10	실 외 국 의 건 1 담 당
강	중 원	10.	21	속 기 과 편 집 2 담 당
이	동 일	2.	10	교 육 후 생 담 당 관
김	경 만	2.	10	관 리 과 관 리 계
성	천 영	3.	16	속 기 제 2 담 당
조	우 석	3.	16	속 기 제 6 담 당
김	치 원	4.	1	청 원 담 당
황	인 하	4.	1	의 사 제 1 담 당
박	보 화	4.	23	자 료 편 찬 과
현	병 고	4.	23	시 설 과 영 선 계
채	강 희	10.	16	속 기 제 5 담 당

○ 그간 國務會議室에서 勤務하던 이영열會員이 事務官으로 昇進하여 大田中央公務員敎育院 學生課로 轉補되었습니다.

○ 會員動靜

(1) 辭 職

金 惠 碩 會員(3.16) 朴 英 秀 會員(6.2)

(2) 復 職

朴 起 旼 會員(4.27) 吳 光 雄 會員(11.5)

(3) 結 婚

金 惠 碩 會員(2.22) 朴 英 秀 會員(5.3)

崔 吉 柱 會員(5.5) 趙 正 詢 會員(5.2)

洪 淳 寬 會員(5.23) 柳 成 秀 會員(10.11)

○ 入 隊

許 光 鉉 會員(8.17)

속 기 요 금 안 내

1981. 1. 1 시행

속 기 기 본 료	1 시 간 당	80,000원
녹 음 재 생	"	90,000원
전 문 분 야	"	90,000원
외 국 어 속 기	"	10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출장시에는 상기요금 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상기요금 외에 매 시간당 15,000원씩 가산한다.
- 우리는 들은대로 기록하고 보배거나 매지 아니한다.
-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및 2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한다.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第10回 全國 速記人 體育大會

鄭 珠 鉉

I. 大會經過

1. 일 시 : 1981年 10月 1日 10:00
2. 장 소 : 한국도로공사구장
3. 참가인원 : 245名(회원 160名, 어린이 85名)

4. 경기내용 :

(1) 축구

청룡팀(편집 1, 2. 속기 1, 2)

맹호팀(속기 3, 4, 5, 6)

백마팀(내빈)

사자팀(외부회원)

(2) 아동 과자 따 먹기(미취학 아동 30名)

(3) 만물상 경기(내빈등 20名)

(4) 여회원 발야구

최다득점상(이주연), 인기상(박치명), 민첩상(정주현)

(5) 내빈 튜브릴레이

(6) 아동 풍선 터뜨리기

(7) 바가지게임(부부팀對 미혼팀)

5. 대전결과

축구우승 : 사자팀

최우수상 : 고재중(사자팀)

미기상 : 김형곤(사자팀)

인기상 : 조우석(맹호팀)

감투상 : 이승철(맹호팀)

공로상 : 이용수 이강현 노희남
박대성 김운수 박순필

6. 포크댄스

II. 參 觀 記

열은 안개속에 살랑이는 코스모스를 보며 어쩔 수 없는 흥분을 재잘거림으로 감추어 버리고 만 날이요, 지난해의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해서 3年餘만에 全國의 速記人家族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가벼운 흥청거림으로 관교의 푸른 잔디가 더욱 푸르고 가을하늘이 더욱 높고 밝은 그런 하루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그칠 새 없이 미소면 다정한 얼굴들.

× × ×

가벼운 안개가 햇빛에 날리어가면서 게임은 하나 하나씩 진행되었는데, 특히 올해의 팀구성은 맹호, 청룡, 백마, 사자등 축구팀을 주축으로 짜여졌으나 모두가 내팀이요, 특히 이기는 팀은 모두가 내편이었다.

이날의 경기는 朴權欽會長님의 始獻으로 젊음을 과시하는 맹호팀對 노련미를 자랑하는 청룡팀의 축구경기를 시작으로 進行委員들의 재치와 노력으로 질서와 화

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한편 축구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장 주변에는 약80여명의 어린이들의 춤과 노래가 있는 응원과 재물이 한창이어서 보는 이들로하여금 폭소와 微笑를 머금게 하였으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꽃봉오리가 있는 우리 速記人 家庭의 앞날을 보는듯 하여 우리 모두에게 더욱 힘과 용기를 주었다.

또한 축구경기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가졌던 미취학 아동의 「과자 따먹기」게임에서는 흔들리어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과자에 왜그만 입을 한껏 벌리면서도 결코 손을 댈 줄 모르는 모양을 보았을 때 이들을 영원히 이내로 두고 싶은 마음은 우리 때물은 어른들의 욕심에서였을까. 무엇이 이기고 지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쥐어주는 선물에 빠알잠게 익어가는 불이 더욱 사랑스러울 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다워지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게임에 입할 때 벌어졌던 내빈들의 「만물상경기」.

무엇이 그리 짧게 만들어 드렸을까. 이때만은 나이도 地位도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

빨간 잠바를 한팔만 끼시고 일곱마져 빨알개져서 웃으시는 모습. 富를 자랑하시는가 다섯개나 되는 時計를 차시고 좋아하시며 「파트너」는 어디에 놔두고 혼자만이라도 일등하시려 뛰시다니, 어휴 그러시면 안돼요.

보느니로 하여금 손에 딸을 쥐게 했던 것은 역시 젊은 女會員들의 발아구가 아니었을까.

젊음, 민첩, 발랄함. 그리고 탄력, 미래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건강하니 한국남

성들이여 밀고 안심하시고 속기인 여성들을 지켜보시라!

또 내빈 「뷰티퀸레이」는 어떡했는가.

마음은 바르고 몸은 마음 같지 않으니 女會員 「파트너」들이 모시고(?) 다니기 힘들어 보이니 이 또한 폭소로 와!

또 부부팀 對 미혼 남녀팀으로 나누어 가졌던 게임도 있었다. 그런데 미혼 팀의 도전은 무리였지.

부부는 칼로 물베기요, 一心同體라 하지 않았나, 마주잡은 마음과 마음에 어찌 어설뿐 처녀 총각의 도전이 틈을 만들 수 있을까. 결과는 아무런 말 없어도…….

이제는 모든 게임도 중반에 접어들고 모든이의 관심이 집중된 축구결승만이 남았는데 젊음의 상징 병호 對 외부회원의 사자가 캐권을 다부게 되어 당기고 끌리는 줄다리기 끝에 전후반 모두 지나도록 승부는 나지 않아 이제는 승부차기로 아쉬운 결말을 내야 할 순간!

“슈—웃”

“골인!”

“슈—웃”

“노골!”

공 하나 하나에 엇갈리는 표정들이 손에 딸을 쥐게 만들고 역시 경륜은 승운인 듯 사자팀이 4對 2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지닌 모습이 더욱 당당하였다.

이제 해가 서서히 얼굴을 숙이며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할 즈음 20여명의 국회 남녀 혼성 「디스크 팀」(?)의 넓고 푸른 잔디위에서의 흥겨운 춤은 모두를 젊게 해 주었으며 손에 손을 잡고 뛰어 본 folkdance는 우리 速記人은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어스름 돌아오는 길에서 한시라도 아쉬워 끊어지지 않는 노래속에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 생각해 보며 내가 이들속에 있으며 이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포근하고 자랑스러워 두 팔을 꼭 끼고 한껏 숨을 들이 마신다.

내년에 또 만나기를 기약해 보면서...

Ⅲ. 本大會를 위한 贊助者 名單

1. 찬조금

국회의장 접대회	10만원
국회부의장 채분식	5만원
민한당 총무 고재청	10만원
농수산위원장 이범준	3만원
박권흠의원(회장)	10만원
국회사무차장 조병완	3만원
강성달 내무위원의관	1만원
강천구 의사과장	1만원
안인영 부회장	1만원
김진기 지도위원	1만원
정원도 지도위원	1만원
이승훈 서기관	1만원
유상호 사무관	1만원
코모양복점	3만원
평명조기회	2만원
브론디양장점	2만원
법원회원 일동	6만원
동방 속기학원	5만원
양성소 동분회	3만원

고려 속기학원	2만원
부산 속기학원	1만원
성문인쇄소	1만원
이상호회원	3만원
송박문 "	2만원
박광택 "	2만원
전재곤 "	2만원
최석모 "	1만원
김영선 "	1만원
서병운 "	1만원
권해성 "	1만원
권용태 "	1만원
최병수 "	1만원
이진식 "	1만원
강종원 "	5천원
김치원 "	5천원
이윤화 "	5천원
노원호 "	5천원
합 계	91만원

2. 현물 찬조

박효진 국회사무총장	맥주 5박스
	사이다 6 "
이진복 안국산업 이사	파라법랑 19점
이기곤 의사국장	씨원 200병
이용수 회원	캔맥주 48개
	환타 "
정우용 회원	꽃 6다발
한국맥이콧드만년필(주)	볼펜 300개
계	55만원 상당



第1回 全國 速記人 「테니스」大會

※ 大會 經過

1. 日 時 : 1981年 8月 30日
2. 場 所 : 國會 「테니스·코트」
3. 參加人員 : 39명
4. 對戰結果 : 1위 현병고·최예숙조
2위 박순필·박대성조
3위 정대길·김형곤조
장려상 노희남·송기철조
장려상 정명진·고태중조
6. 本大會를 위한 贊助者名單

<金一封 喜捨>

- | | | |
|--------|-------|--------|
| 申世華理事長 | 김영신會員 | 최황수會員 |
| 김기영會員 | 강종원會員 | 송기철會員 |
| 성친영會員 | 김치원會員 | 현병고會員 |
| 박순필會員 | 김동수會員 | 정대길會員 |
| 박정호會員 | 최예숙會員 | 김채영會員 |
| 박광택會員 | 박기만會員 | 이태호會員 |
| 박대성會員 | 김부진會員 | 오준근會員 |
| 노희남會員 | 최병수會員 | 정명진會員 |
| 고태중會員 | 서경남會員 | 한기완會員 |
| 이형근會員 | 김형곤會員 | 計 27萬圓 |

<記念品 喜捨>

光明早起會

※ 參觀記

유달리 길었던 울 여름의 더위도 꼬리를 잡추는 8월의 마지막 일요일. 여의도

의 푸른 숲이 있는 국회의사당 정구장에서 벌어졌던 제 1회 전국 속기인 「테니스」 대회는 작은 「테니스·볼」을 중심으로 평소에는 흩어져 자기 일만에 바쁘던 속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또다시 각별한 우의를 주고 받는 기회가 되었다. 처음으로 시도된 그다지 요란하지 않은 이 행사는 사무처의 속기 3계와 4계의 최황수, 김기영 두 계장의 발의 및 주신으로 이루어지고, 신세화 이사장께서 우승컵을 내 놓으신데다 여기에 호응하고 참가하는 뜻있는 회원들의 찬조로 말미암아 조촐하면서도 오붓한 모임이 된 것이었다.

실력을 겨루어 본다는 의도는 멀찌감치 제껴놓고 친목위주의 즐거운 기분으로 「라켓」을 들고 나온 회원들은 그 수준에는 여러 충임을 보여 주었으나 그건 문제가 안 될 만큼 화기가 알뜰(?)이 넘치는 하루였다.

협회로서는 공식적인 체육대회만도 싫어 여의 치렀고, 그때마다 추구가 주목을 이루어 왔음을 생각하면 이제 속기와 「테니스」라는 새로운 결합인자가 생겨나 「테니스」의 대중화와 더불어 우리의 생활의 변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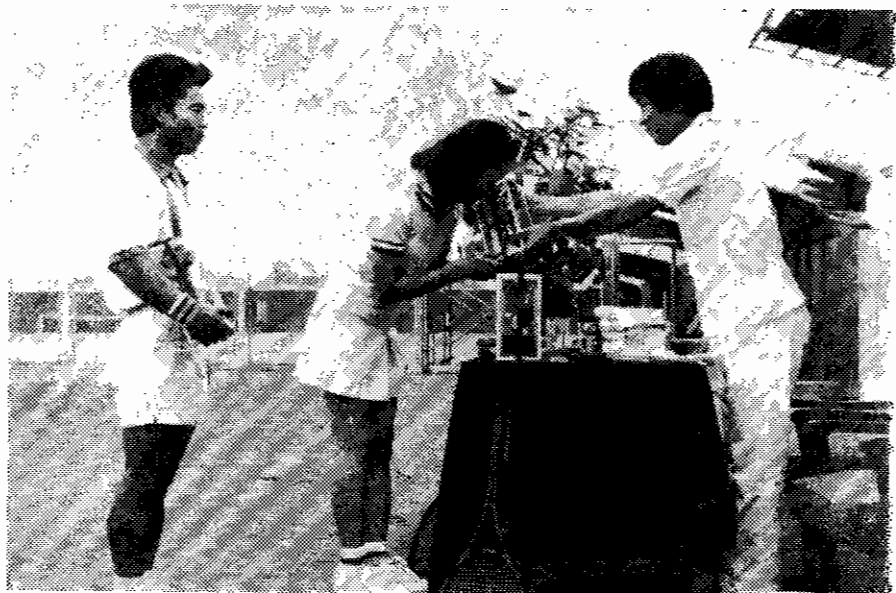
이번에는 공식행사가 아니었으나 여의도

곳에서 많은 얼굴들이 나타나 반가움을 더해 주었다. 마침 당일 아침까지도 비가 뿌리고 있어서 준비위원들을 조마조마 하게 만들었는데 「게임」에 들어가자 비가 멎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 흐린 상태로 날씨가 머물러 주어 운동하기에 지치지 않는 아주 좋은 날씨가 결과적으로 된 셈이었다.

진행방식은 복식 「토너먼트」로 될수록 모든 사람이 「코트」에 설 수 있게 했는데 현병고, 최예숙의 혼성조가 남성들 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 세련된 기량의 소유자

인 현선수는 정확한 플레이로 「코트」를 누비는 경력적인 「게임」을 운영, 꾸준히 구력을 다져온 최예숙 선수의 늘씬한 몸과 어울려 이난의 꽃이 되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잔디 위에서 불고기 파티가 베풀어 졌다. 숯불 옆에 오손도손 모여 한잔 소주와 정당을 나누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모두들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가까운 기일내에 다시 모일 것을 기약하면서 구장을 나서는 발걸음도 가볍기만 했다. <致>



<申世華理事長께서 현병고 최예숙조에게 우승컵을 수여하는 광경>

第14回 定期總會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1. 日 時：1980.12.31 午後 1時
2. 場 所：國會 146號 會議室
3. 出 席：在籍會員 139名 中 84名 出席
4. 附議案件
 - 〈1〉 會務報告
 - 〈2〉 1980年度 決算承認 및 監查報告
 - 〈3〉 1981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案承認
 - 〈4〉 任員改選

5. 會務報告

1. 理事會 運營

1979年 12月 29日 第13回 定期總會 以後 1980年 2月 7日 第105次 理事會로부터 1980年 12月 22日 第108次 理事會까지 4次의 會合을 通하여 法人定期報告 協會基金 運用方案, 會費引上 第17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第26回 및 第27回 無料速記講習實施 速記料金引上, 速記界 第21號 發刊 第14回 定期總會 開催 等 協會運營을 위한 諸決議를 하였음.

2. 涉外活動

速記界와 관계있는 各界 人士를 訪問하여 新年人事를 드렸으며 서울시 山岳聯盟, 新年交禮會와 韓國事務能力開發院이 勞動廳의 위임에 의하여 每月 實施하는 速記檢定試驗 要綱 補完을 위해 勞動廳을 訪問 協議한 바 있으며 無料速記講習에 대하여 서울特別市 敎育委員會에 質疑한 바 各級 學校 在學生은 學校長의 課外學習許可書를 지참하여야 學校밖에서 受講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의 各種 行事に 參席하였음.

3. 會誌發刊

80年 12月 30日 “速記界” 第21號를 發刊하였음.

4. 速記講習

	期 間	場 所	講義法式	受講人員	修了人員
多季講習	'80. 1.14~2.2	東邦速記學院 高麗 "	동방 고려 Gregg	國語 479名 英語 160名	國語 352名 英語 105名
夏季講習	'80. 7.31~8.16	東邦速記學院 高麗 "	동방 고려 Gregg	國語 167名 英語 64名	國語 126名 英語 48名

5. 資格檢定

回 數	日 字	應 試 人 員	合 格 人 員
17 回	'80.4.20	國 語 132名 英 語 13名	國 語 33名 英 語 7名

6. 議決된 案件

(1) 1980年度 決算

세 入			세 出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기 본 수 입	420,400	446,910	회 의 비	532,000	379,530
월 회 비	410,400	446,910	경 기 총 회	400,000	333,300
입 회 비	10,000	0	회 의 비	132,000	46,230
사 업 수 입	3,940,000	3,120,000	경 상 비	190,000	116,340
방학강습수수료	3,400,000	2,886,000	사 무 비	90,000	36,340
자격검정수수료	540,000	234,000	활 동 비	100,000	80,000
찬 조 금	600,000	0	수 용 비	5,000	1,500
잡 수 입	290,000	656,927	사 업 비	3,851,200	1,817,400
이 월 금	2,526,130	2,526,130	방 학 강 습	2,523,200	1,705,200
			속기 경기대회	400,000	0
			자격 검정시험	418,000	112,200
			학교 및 사회단	100,000	0
			체 속기 강습	410,000	0
			체 육 대 회	500,810	450,560
			섭 외 비	100,000	88,000
			회 지 발 간	400,810	362,560
			연 구 비	145,000	0
			관 공 비	240,000	233,100

			예 이	비 월	비 액	2,312,520	63,585
							3,687,952
계	7,776,530	6,749,967				7,776,530	6,749,967

監 査 報 告 書

定款 第29條의 規定에 의거 1980年 12月 24日 현재 本 協會의 財政現況을 監査한 結果 決算書와 相違없음을 報告합니다.

1980年 12月 31日

監 事 金 基 英
河 大 煥

<2> 1981年度 豫算

세		입		세		출	
관	항	예	산	관	항	예	산
기	본 수 입	1,036,000		회	의 비		544,000
원	회 비	1,026,000		경	기 총 회		400,000
입	회 비	10,000		회	의 비		144,000
사	업 수 입	3,730,000		경	상 비		193,000
방	학 강 습	3,050,000		사	무 비		93,000
자	격 경 경	680,000		관	동 비		100,000
찬	조 금	100,000		수	용 비		30,000
잡	수 입	700,000		사	업 비		3,292,200
이	월 금	3,687,952		방	학 강 습		2,078,200
				학	교 사 회 강 단 체		100,000
				속	가 사 회 강 단 체		100,000
				체	육 대 회		410,000
				섭	외 비		554,700
				섭	외 활 동		120,000
				회	지 발 간		434,700
				속	기 경 기 대 회		342,000
				자	격 점 경 시 럽		362,000
				연	구 비		160,000
				속	기 학 술 연 구		160,000
				관	공 비		240,000
				적	립 금		2,500,000
				예	비 비		1,740,052
계		9,253,952					9,253,952

會 務 日 誌

80. 12. 31 第14回 定期總會
1. 1980年度 決算承認
 2. 1981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案)承認
 3. 任員改選
81. 1. 7 第109次 理事會(委員會構成, 任員部署 決定)
1. 12—1. 31 冬季放學講習實施(359名 修了)
 2. 2 美議會 上院 主任速記士와 書信往來開始
81. 2. 14 第110次 理事會(協會進路問題協議 會館建立 등)
4. 14 任員就任認可(文公部)
 5. 1 資格證 更新發給開始
 5. 3 第18回 資格檢定試驗(140名)
 5. 4 法院登記完了
 5. 8 인터스테노(世界速記타이프聯盟)와 書新往來開始
 5. 20 인터스테노規約入手
 6. 13 特別資格檢定試驗(6名)
81. 7. 14 第111次 理事會
7. 28 第112次 理事會(住所錄發刊, 釜山學院放學講習實施)
 7. 29 第113次 理事會(特別資格試驗實施 釜山)
 7. 30 夏期放學講習實施(187名 修了)
 8. 3 特別資格檢定試驗(26名)
 8. 24 第114次 理事會
會長 推戴 朴權欽議員
 8. 30 第1回 理事長杯爭奪「미니스」大會
 9. 20 會員住所錄 發刊 配付
 10. 1 第10回 全國速記人 體育大會
 10. 9 第3回 全國速記競技大會
 10. 15 日本速記協會 書信往來
 11. 29 第19回 資格檢定試驗(137名)

〈3〉 任員改善

定款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滿了된 任員을 다음과 같이 選出하였다.

會 長 朴權欽(國會議員)

副 會 長 安仁榮

指導委員 姜駿遠

" 張基泰

" 金星漢

" 李東根

" 金鎮基

理 事 長 申世華(國會速記課長)

總務・財政部 金基英 朴順必

涉 外 部 申熙東 金銅洙

事 業 部 成千永 鄭大吉

外國語部 金基英 金珠成

研究委員會 崔況洙 李承哲

資格審査委員會 柳智永 權寧燦

無 任 所 李康賢 金永春 玄柄高

監 事 宋基喆 高太仲

會費納付案内

協會에서는 會員諸位의 회비납부에 편의를
圖謀하기 위하여 우편대체구좌(532689)를 마
련했아온 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비는
月 500원(年 6,000원)입니다.

協會運營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참신한 의
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① 編 ② 輯 ③ 後 ④ 記

◎ 大望의 80年代! 86「아세안게임」, 88 서울「올림픽」, 이 모두가 가슴 벅찬 일들이다. 이를契機로 世界속의 Korea가 다시한번 부각되리라 믿는다.

韓國速記가 國家의 保護를 받고 速記人의 權益伸張이 알찬 內容을 다질 때 韓國速記 또한 世界속에 뿌리가 내려질 날 미지 않으리라……. <漜>

◎ 10餘年만에 열린 速記競技大會인지라 유난히도 「메스퀼」의 脚光을 많이 받은 것 같다. 務持를 가지고 이번 號에 特輯으로 꾸며 보았다. 이大會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任員陣의 勞苦에 致賀를 보내며 앞으로 더욱 精進하여 그야말로 名實相符한 全國速記競技大會가 되기를 바란다. <杓>

◎ 協會의 意欲的인 活動 덕분에 記事滿發, 編輯陣은 安堵의 한숨과 함께 士氣衝天. 기여이 挿畫를 맡아 준 朴起晚會員 또 玉稿를 보내주신 會員 諸位께 감사를 드린다. <承>

會
告

速記界編輯委員會가 面貌를一新하여 崔漜洙, 李承哲, 洪基杓, 朴仁惠, 鄭珠欽 會員으로 구성하였읍니다. 會員 여러분 의 많은 指導를 바랍니다.

速 記 界 第 22 號

1981年 12月 19日 發行

發行人	朴	權	欽
編輯人	崔	漜	洙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1

Tel. 7802-2471~6

非 賣 品

學 院 案 內

♣ 創立 32 周年！

- ◇ 우리나라 最古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한글速記科

- 1. 本 科…………… 4個月
- 1. 研修科…………… 1年
- 1. 資 格…………… 高卒以上

英文速記科

- 1. 本 科…………… 3個月
- 1. 研修科…………… 6個月
- 1. 資 格…………… 高卒以上

修了後

立法府, 法院, 各官公署, 各言論機關, 各軍速記兵, 外國人商事, 留學時的筆記 및 알바이트 等 高級就職으로 社會 進出 容易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765) 4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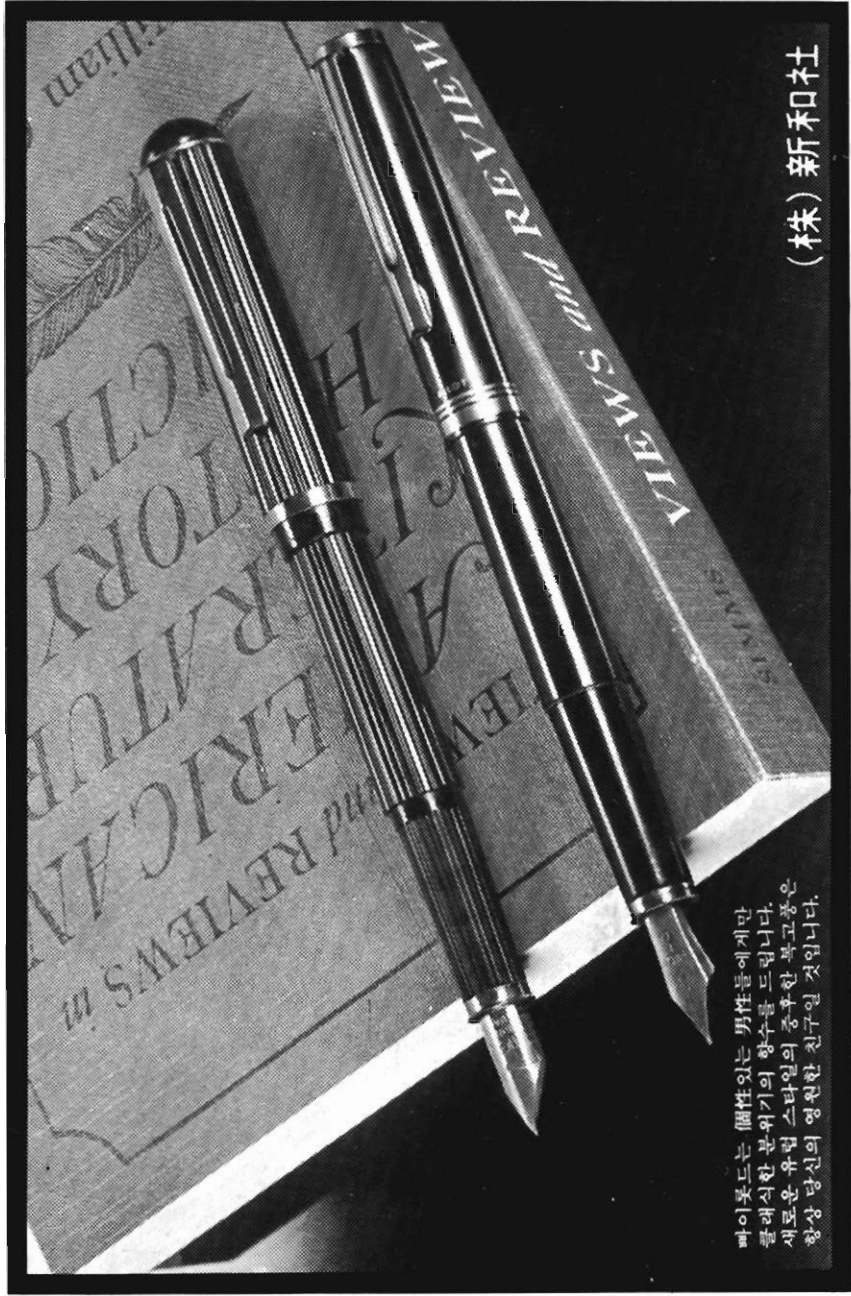
學 院 案 內

- * 各種 株主總會 및 臨時總會
- * 「세미나」學術會 座談會 및 講演會
- * 法廷提出用 錄音 Tape錄取
- * 특히 「알바이트」를 願하는 大學生과 入隊豫定者에게 萬全을 期하고 있음.

- 教育期間；專門職—1年
非專門職—5個月
- 資 格；高卒以上
- 進 出 處；國會, 情報機關, 言論報道機關, 通信社, 教育機關 및 國營(一般), 大企業體
- 通信講義；郵票 3枚

高麗速記教育院 Tel. 363—3809

西大門區 忠正路 3街 190-26 (漢洞國校 越便)



바이롯드는 個性 있는 男性들에게만
클래식한 분위기의 향수를 드립니다.
새로운 유럽 스타일의 중후한 복고풍은
항상 당신의 영원한 친구일 것입니다.

(株) 新和社

知性美와 格調가 있는
個性의 필기구!!

PILOT